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1
http://www.paekdu-hanna.com





服务

평양정향기술합영회사

Service

客户至上

평양정향기술합영회사는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건재품들에 대한 연구, 생산, 판매를 종합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토대를 다 갖춘 건재생산기지이다.

회사는 2001 년에 창설된 때로부터 각종 칠감, 콩크리트첨가제, 방수재, 보온재, 경소마그네샤합판을 비롯한 제품들을 개발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진행하고있다.

평양정향건재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수성 및 유성칠감들은 오랜 기간의 경험과 과학적원리에 기초하여 현대적인 설비와 선별된 원료로 정밀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철저한 품질검정을 받는다. 제품들은 은페력, 부착력이 높고 수명이 오래며 색변화가 적고 색도가 선명하고 아름답다.

아크릴계수지칠감으로서 각이한 색갈의 무광택, 반광택, 광택외장재가 생산된다.

진주광택칠감은 자연계의 진주와 같은 신비한 광택을 내며 로화와 색변화, 오염이 거의 없는 고급한 장식칠감으로서 금색, 은색 등으로 생산된다.

천연돌가루와 아크릴수지를 기본원료로 하여 만든 돌장식칠감은 값비싼 석재를 쓰지 않고도 류사한 장식효과를 낼수 있으며 오염이 적고 시공과 보수가 쉽다.

이밖에도 지붕칠감, 녹막이칠감, 금속칠감, 에폭시바닥칠감, 아크릴선전화색감, 단청, 나무용칠감 등이 생산된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콩크리트첨가제들은 뛰여난 감수성능과 경화특성을 다같이 겸비한 복합형콩크리트첨가제이다. 이 제품들은 철근부식을 일으키지 않으며 콩크리트의 초기세기를 급격히 높여준다.

회사에서는 10 여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시공이 쉽고 방수능력이 높은 방수재와 방수방법을 완성하였다. 이 방법은 평지붕, 수영장, 지하구조물, 위생실 등에 광범히 쓸수 있어 현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paekdu-hanna
백두 - 한나

앞표지:
김책시림명농장마을에서 근로자들 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리상을 안고 개척되고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방략을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그 줄기찬 상승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치따라 위대한 조선인민특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력으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낸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거창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완강하게, 지혜롭게 돌파해온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되새겨보고있다.

시련에 찬 2022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잠재력, 조선의 정신, 조선혁명의 견결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을 더 믿게 되고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쥐게 되였으며 전면적인 발전의 로정도를 더 선명하게 설계하게 되였다.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새로운 전진도약을 지향하는 오늘의 형세하에서 우리 혁명앞에는 의연 피할수도 에돌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있으며 이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단합되고 강인하며 용감한 투쟁으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다.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비범한 령도활동으로 전당강화의 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위업을 비약적인 전면적발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 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

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 제5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년,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 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 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

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 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 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 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

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 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긴장의 생산돌격투쟁, 과학연구투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 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 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혁혁한 발전을 이룩한 2022년의 전인민적인 투쟁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전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힌 총비서동지의 보고에 전체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미래를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우리 힘으로 개척해나갈 필승의 자신심으로 충만된 총비서동지의 열정적인 보고는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된 위대하고 무진한 힘을 적극 승화시켜 그 절대의 위력과 과감하고 용의주도한 투쟁으로 국가부흥의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줄기차게 달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회의에서는 경제부문을 비롯하여 전반적국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에 대한 내각총리 김덕훈동지의 제의를 청취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의 토론 및 서면토론이 있었다.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보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방대한 2023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2일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결정서초안에 대한 종합된 의견들을 최종심의하고 새해 국가예산안심의정형을 검토하였으며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위한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다섯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조선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 80성상을 가까이하는 장구한 집권행로를 아로새겨온 우리 당에 있어서 시대의 변천을 직시하고 당의 실태를 투시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하며 령도적, 전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는것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총비서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새시대 당건설사상과 리론은 력사적으로 축적되여온 조직, 사상, 령도예술건설의 혁명적진수와 내용, 고귀한 경험을 다 포함하면서도 당사업실천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에 제기하고 과학적으로 해명한것으로 하여 제시된지 몇달 안되는 기간에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전적인 지지찬동을 획득하였다.

당건설에 관한 리론체계를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규률건설, 작풍건설로 새롭게 구성하고 그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실행되였다.

특히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재정비되고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정치적각성과 역할이 앙양강화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당건설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심화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였다.

당중앙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건전하고 결백한 정치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당조직들과 수백만 당원들을 가지고있으며 수천만의 인민들이 당을 백승의 향도자로, 위대한 어머니로 절대신뢰하고 일편단심 따르는것은 당강화의 믿음직한 력량으로, 억척의 지반으로 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고 력사적 행정에서 그 계승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현가능성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증한데 따라 새시대 5대당건설방향을 당의 로선으로 책정하는것은 조건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실하면서도 성숙된 문제로 부상하고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이 우리 당의 당건설로선으로 확정되면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성격과 본태를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강화하면서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백년, 천년 다해나갈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전당의 의사가 집대성된 새시대 당건설방향을 정식 당의 로선으로 책정할것을 전원회의앞에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5대방향을 우리 당의 새시대 당건설로선으로 책정함에 관한 결정서가 장내를 진감하는 우렁찬 박수속에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페회사를 하시였다.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직면한 난국을 견디여내고 자체를 유지보존하는데만 머무르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발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미증유의 거창한 위업이다.

새해에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될것이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에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성과 혁명성, 헌신성에 의하여 전원회의결정들이 착실한 집행과 실제적인 변혁에로 이어지고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며 페회를 선언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예술,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전당강화와 국가부흥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줄기차게 인도하시는 존엄높은 우리당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제 또다시 강용히 넘고 헤쳐야 할 시련의 준령들앞에 새로운 신심과 의지로 충만된 마음들을 엄숙히 세워보며 당중앙을 따르는 혁명의 한길에 일편단심 변함없을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원숙한 령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굴함없이, 멈춤없이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더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류례없이 간고한 2022년을 백절불굴의 투쟁과 전진으로 긍지높이 결속하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를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 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실행을 위해 당과 인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실질적이며 비약적인 변화발전을 반드시 성취할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신년경축대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새해를 경축하는 뜻깊은 대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5월1일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와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６차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조선소년단 제９차대회 참가자들, 수도시민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천만년 받들어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펄펄 날리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공연에는 어머니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종목이 올랐다.

대공연에 출연한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은 참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신년경축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６００㎜ 초대형방사포 증정식 성대히 진행

국가방위력강화를 위한 위대한 당중앙의 전략적구상실현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지지하고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열렬한 충성과 애국의 마음이 응축된 첨단무장장비인 초대형방사포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증정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세상에 없는 초대형방사포를 개발완성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과 신뢰성, 운용믿음성을 뚜렷이 확증하고 계렬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공화국무력의 군사적능력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게 하였다.

당의 위업에 절대충실하고 조국과 혁명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여 력사에 없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군수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증산투쟁을 전개하여 30문의 초강력주체병기들을 당중앙전원회의에 드리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로력적선물을 마련하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증정식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증정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강철의 담력, 불면불휴의 화선령도로 신성한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억만대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세계최강의 전략적힘, 절대의 위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고 강군건설의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이 증정식에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군수로동계급대표가 증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꿈결에도 그리며 우러르던 당중앙뜨락에서 군수공업력사에 있어본적 없고 세상이 처음 보는 성대한 무기증정식에 참가한 커다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군수로동계급이 당의 강군건설위업을 피와 땀으로 받들어갈 애국의 일념안고 분기하여 증산한 초대형방사포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정중히 증정함을 삼가 보고드리였다.

그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받들어나갈 전체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충성의 결의가 담긴 증정서를 **김정은**동지께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강력한 국방건설구상을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떠받들 불굴의 기개를 안고 분투하며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의 증정으로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절대지지해주고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준 군수로동계급의 진정에 감사를 표하시고 열정넘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군수로동계급과 절대의 힘을 지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제일 큰 자랑중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혁명전사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의 성과적실행에 총궐기해 분투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답례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증정식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초대형방사포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을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군수로동계급의 투철한 사상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평가하시고 충성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혁명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초대형방사포증정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전인민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하고 우리 당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과 로선을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갈 영웅적 조선로동계급의 신념의 맹세와 억척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재중조선해외공민들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재중조선해외공민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고있는 주체 112(2023)년 첫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한 전체 재중조선해외공민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전체 일군들과 공민들에게 열렬한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2022 년을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상초유의 보건위기와 횡포한 자연재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 겹쳐드는 극난한 시련속에서도 정치, 경제, 국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공화국의 70 여년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일어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사랑을 듬뿍 받아안고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일군들,전체 조선해외공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속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동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부딪히는 난관을 극복해나가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해외동포조직으로서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는 긍지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올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총련합회는 새해에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로선과 투쟁방략들을 관철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있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며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켜 우리 공화국의 해외동포사랑이 모든 공민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입니다.

나는 모든 조선해외공민들이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주체 112(2023)년 1 월 1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제기구, 외국의 단체와 재중동포단체,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체１１２(２０２３)년 새해에 즈음하여 국제무도기금리사회, 중국 베이징조아국제문화교류중심, 베이징중조우련국제문화발전중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국 단동시조선족련합회, 단동시조선족총상회, 단동시조선족련합회 부녀분회, 체육분회, 청년분회, 애심분회, 무역분회, 료식업분회, 배구분회, 의료분회, 기류분회, 문예분회, 교육분회, 봉성분회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 회장 표성룡, 단동시조선족련합회 회장 심청송, 심양시조선족련의회 회장 길경갑, 료녕성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강학원, 료녕성소백수문화전파유한공사 총경리 최걸, 단동진성상무유한공사 총사장 박광걸,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 총경리 최수진가족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지난해 １２월 ３０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등의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중국 단동항풍상무유한공사 경리 림빈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주체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희세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긴 2022 년의 려정을 뜨거운 격정과 감회속에 돌이켜보며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23 년을 맞이하고있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민족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뜨거운 축원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2022 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도 세련된 령도밑에 사상초유의 보건위기와 횡포한 자연재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이 겹쳐드는 극난한 시련속에서도 정치.경제, 국방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공화국의 70 여년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일어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 경해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주시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굳건히 지켜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 돐경축 열병식을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불가항력적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 돐경축 열병식의 황홀한 명장면들을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접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빛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 탁월한 수령을 모신 강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똑똑히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 7 차회의에서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주시였습니다.

력사적의의와 가치에 있어서 그 어떤 승리보다 비할바없이 크고 억만금과도 대비할수 없는 9 월의 기적적사변은 정치의 거장이시며 담대한 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위대한 승리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법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신 원수님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전해갈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2 년 3 개월이나 굳건히 지켜온 방역장벽에 파공이 생기고 하루에 수십만명의 유열자들이 발생하던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방역대전의 총사령관이 되시여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점과도 같은 사랑하는 인민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결사수호의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열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약국들에도 서슴없이 나가시여 몸소 약품판매실태를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취해주시였으며 심한 고열속에 앓으시면서도 가정에서 쓰셔야 할 귀중한 상비약품마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내주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이였습니까.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조선로동당의 제일국사로, 최중대정책이라고 하시며 애기젖가루와 암가루공급문제에까지 세심히 관심하여주시고 학생교복문제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제정하여 새 학년도를 맞이한 전국의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신발, 책가방과 학용품까지 보내주

신 분이 바로 온 나라 아이들의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이렇듯 위민헌신의 길에서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미래를 억척으로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속에 100 여정보의 생산면적과 수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의 련포온실농장이 8 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일떠서고 5,500 여대에 달하는 현대적농기계들이 황해남도에 전해졌으며 수많은 농촌문화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척박한 산골군인 김화군이 지방경제발전의 시대적본보기로 전변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여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소리높이 울려퍼지게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핵항공모함타격집단을 동원한 련합미싸일방위훈련을 공공연히 벌려놓으며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고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수지수중발사장에서의 탄도미싸일발사와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싸일발사훈련,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싸일발사 등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 력사적인 2022 년에 동방핵렬강의 군사적강세를 만천하에 과시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적들의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에 대처하여 전술탄도미싸일과 지상대공중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전술무기들의 련속적인 발사에 이어 수백대의 전투기들을 동원한 총출동작전으로 조선인민군의 철저한 대응의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의 <공군우세론>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잊을수 없는 11 월 18 일에도 세계최강의 핵병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지도하여주심으로써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낼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여주시고 온 민족, 온 인류에게 끝없이 무궁찬란할 주체조선의 앞날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는 민족사적대경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되새겨볼수록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뿌듯해지는 2022 년의 격동적인 사변들은 절새의 애국자이시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만고불멸의 대업적입니다.

지금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철의 신념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에 우리들은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을 안고사는 재중조선인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며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정성사업과 동북지역 항일혁명전적지관리사업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총련 제 25 차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조직강화사업을 총련합회의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산하조직들을 정비보강하며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시키고 민족의 우수성을 계속 살려나갈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에 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시켜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 이역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저희들의 절절한 념원은 오직 하나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건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조선의 부흥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고 창창한 래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112(2023)년 1 월 1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국 심양

우리 조국은 온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 오를것이다

뜻깊은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 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의 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살고있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무한한 긍지와 환희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가 제 8 기 제 4 차, 제 5 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였을뿐아니라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 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는데 대하여서와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2 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습니다.

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 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시고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과 방도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또한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과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대응방향을 천명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밖에도 혁명이 심화되고 시대가 변천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사상문화, 생활문화령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고유하고 우수한 생활력인 대중운동, 사회적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변천하는 혁명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전진방향과 비약의 해법을 명확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 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가 제시된 모든 의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합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정치실력을 자랑하는 정당지도자들도 적지 않지만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렇듯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당을 이끄시여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정치군사강

국, 이 행성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같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조국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전설같은 소식들에 접할 때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겹게 되새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원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습니다.

인민이 그토록 바라는 강국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헤쳐오신 위민헌신의 길이 있어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와 60 청춘을 자랑하며 여생을 복락속에 보내는 로인들의 구김살 없는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새해의 이 시각에도 지구상의 곳곳에서 악성전염병사태로 인한 공포와 절망의 비명소리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탄식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지만 조국땅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최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악성전염병과의 방역전쟁이 성과적으로 평정되고 재난이 휩쓸었던 마을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올라 인민이 웨치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있으니 우리 조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사회주의락원임을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천만고생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한없이 숭고한 덕과 정으로 인민의 소중한 웃음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로고속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눈부신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은 광대한 령토나 많은 인구, 최고의 전략자산을 보유하여 강국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사상과 비범출중한 령도력, 고결한 덕망을 지닌 걸출한 수령을 모셔야 강국이라는 고귀한 철리를 심장에 새기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인류가 흠모하고 따르는 대성인이시며 21 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로선과 투쟁방략들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국가부흥과 조국통일, 조중친선관계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애족활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조선의 믿음직한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체 112(2023)년 1 월 4 일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해외전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맞이한 새해 2023 년의 첫 아침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성대히 진행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바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명백히 밝혀준 이번 전원회의에 열렬히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여 시련에 찬 2022 년에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참고 견디여내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하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을 안아온 우리 인민에게 숭고한 감사의 뜻을 표하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과 공화국창건 75 돐을 기념하게 되는 뜻깊은 2023 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

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 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해주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대로 올해에 더 큰 사업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앞에서도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적과 위훈으로 세계를 놀래운 조국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본받아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바쳐나가겠습니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확고히 견지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성원들속에서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조국의 모든 활동과 조치들의 정당성을 대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과 공화국창건 75 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해외전사의 책임과 임무를 다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주체 112(2023)년 1 월 4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사상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치따라 위대한 조선인민특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력으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 년을 영예롭게 이겨낸 우리 조국은 모든 영광과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전체 성원들은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명시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10 년투쟁과 맞먹는 2022 년의 곤난과 진통을 맨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며 온 나라 인민들을 투쟁과 전진의 항로로 줄기차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헌신과 로고,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조국이 맞다든 난관들을 단호히 쳐물리치고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근본비결이였습니다.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속에서 우리 당을 강화하고 혁명대오의 단결과 위력을 비상히 높이였으며 가장 적중하고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킨것은 우리 조국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 가장 큰 정치적결단였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전국의 시, 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에 어울리는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워주시고 우리 나라의 문명수준을 그 어느때보

다 더 높은 수 준에로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우리들은 조국의 전진보폭에 발걸음을 따라세우기 위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를 깊이 연구학습하고있습니다.

전원회의가 제시한 사상과 정신은 우리 해외공민청년들도 60 년대, 70 년대의 조국인민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막아서는 난관앞에서 순간의 답보나 주저도 없이 대담하게 전면공격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백절불굴의 투쟁기세에 새로운 용기와 활력을 더해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어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과 공화국창건 75 돐을 맞는 올해를 재중조선인청년운동의 전환의 해로 맞이하며 청년들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찾아하겠습니다.

조직확대, 조직강화를 최우선적인 임무로 틀어쥐고나가며 한순간을 살아도 조국이 바라는 길을 걷고 절해고도속에서도 변심을 모르는 철석의 신념이 조직안에 꽉 차넘치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청년조직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조직, 애국의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주체 112(2023)년 1 월 4 일

존엄높은 강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를 안고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겠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향도따라 새해의 진군보폭을 힘있게 내짚은 뜻깊은 이 아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소식에 접한 우리 재중조선인녀성협회안의 전체 성원들의 가슴가슴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올라선 존엄높은 강국의 해외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하였던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지난 2022 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해 2023 년에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력사적인 보고와 결론을 하시였습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존엄높은 공화국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같은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들은 정력적인 령도와 끝없는 헌신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새해 2023 년의 새 려정의 승리적리정표를 밝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돌발적인 비상사태, 혹심한 가물과 폭우에 의한 자연피해의 영향으로 우리 공화국의 70 여년력사에서 최악의 국난이 겹쌓였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온 한해 위험천만한 인민사수, 조국보위의 최전방에 서시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희생적인 헌신으로 공화국의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온 누리에 존엄떨치는 강대국의 공민으로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에서 이룩된 수많은 성과들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고귀한 결정체이며 그이의 령도만을 받들어 온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기의 애국적이며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소중한 열매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과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 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놓은 해로 빛내인 조국인민들에게도 뜨거운 동포애적인 인사를 보내며 새해 2023 년의 투쟁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끊임없는 기적적성과들을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삼천리 조국강토에 휘황찬란할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굳은 확신을 안고 용기백배하여 조국인민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 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주체 112(2023)년 1 월 2 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소식에 접하여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일군들의 반영 -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지금 커다란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백경헌 중남지구협회 회장은 뜻깊은 새해 주체 112(2023)년의 려정이 시작되는 첫 기슭에서 우리 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소식에 접하여 위대한 강국,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세차게 높뛰고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함께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만 가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승리의 신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권헌 료녕지구협회 회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을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을 전률시켰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장구한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대대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 공화국의 앞날은 무궁창창하다고 하였다.

박일남 할빈지구협회 회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한다, 2022 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해,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과시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는 해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인민에게 국가부흥의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줄기차게 달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였다,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협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인민들과 보폭을 같이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겠다는 자

기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남초월 목단강지구협회 회장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는 우리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원수님의 보고를 심도있게 학습하고 강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의 강국건설과 륭성번영을 위해 애국의 한마음 바쳐나가겠다고 결의다지였다.

주계숙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장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6 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는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된 위대하고 무진한 힘을 적극 승화시켜 그 절대의 위력과 과감하고 용의주도한 투쟁으로 국가부흥의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줄기차게 달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시련과 난관들이 동반하겠지만 우리 당의 지침따라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굴함없이, 멈춤없이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우리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하였다.

길림시지부 김련원선생은 올해에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 1 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해에 수도건설을 더 통이 크게 벌려 1 만세대외에 3 700 세대 거리를 더 형성하기로 한것은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제일사명으로 여기고 사업하는 조선로동당만이 내릴수 있고 시행할수 있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세계에는 수많은 집권당들이 활동하고있지만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 뿐이라고 격조높이 이야기하였다.

조수영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어떤 시련과 난관이 우리 앞길을 가로 막아도 언제나 그러했듯이 일심단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과감하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해외공민의 한사람으로서 몸은 이역만리에 떨어져있어도 위대한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수 있는 일을 찾아하겠다고 결의다지였다.

리봄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에도 우리의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게 될것이지만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기 힘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닥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에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것임을 천명하시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막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더욱 강성번영할 조국의 대통로가 활짝 열리게 될것임을 깊이 확신하게 되였다고 하였다.

김명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대로 조국해방전쟁승리 70 돐과 공화국창건 75 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과감한 투쟁정신을 자신의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청년협회 회원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이외에도 박성길 중남지구협회 상해시지부장, 김정란 제남시분회장, 윤영화 료녕지구협회 사무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일군들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커다란 힘과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총궐기하여 올해를 승리의 해로 수놓아가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게 결의들을 다지였다.

길림지구협회 년총화모임 진행

김청수부회장의 조직하에 12월 17일 2022년도 길림지구협회 년총화회의를 화상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지구협회 일군들과 산하 지부장들이 참가하였으며 길림지구협회 담당 총련합회 김영희국장이 모임에 초대되였다.

길림지구협회 지순복사무장이 사회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각 지부의 2022년 사업을 총화하였다.

산하 지부장들은 코로나사태의 영향속에서도 지부들에서 총련합회의 의도에 따라 애족애국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부족점, 개선할 점들을 총화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지부조직에 구현하여 우선 조직을 강화하고 지부장들이 공민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자기일처럼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지부공민들을 지부조직에 단합시켜 지부를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모임에서 김청수부회장은 2022년은 코로나영향을 3년째 받는 힘든 한해였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켜준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재국의 법질서와 방역조치를 잘 지켜준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는 무섭고 무정해도 우리 지구협회 일군들은 다정하고 따뜻하다고,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위채방으로 서로 인사도 전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는 모습이 참 보기좋다고 하였다. 그는 한해동안 각 지부장들이 총련의 지시에 따라 지부공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이 훌륭하다며 이 방면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모임 전체 참가자들은 서로 새해를 축복하면서 총련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앞으로 자기맡은 지부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모임에 참가한 김영희 협회담당은 이번 비상시기에 슬기롭게 화상형식으로 년총화모임을 조직한 김청수부회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처럼 특수한 시기 화상회의 형식의 모임은 현 상황에 맞는 사업방식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특색있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이번 모임을 통해 협회 일군들의 단결된 모습,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모습, 지부사업을 더 잘해나갈 지부장들의 높은 사업열정을 보았다고 하였다.

할빈시지부 년총화모임 진행

할빈지부에서는 1월 15일 2022년 할빈시지부 년총화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백웅진지부장을 비롯한 할빈시지부 공민들이 참가하여다.

모임에서 지부장이 지부 년총화를 하였다.

그는 할빈시지부는 코로나비루스 감염자들이 빈번히 발생하여 당지의 방역규정이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 지난 시기처럼 정기학습모임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총련합회에서 맡겨준 과업은 무조건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공민들을 조직하여 총련합회의 여러 행사들을 화상방식으로 시청하고 ≪백두-한나≫잡지를 통해 총련합회의 사업진행정형을 장악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총련합회의 의도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지부사업에 구현하는 문제를 공민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단위들을 찾아가 교섭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기본상 해결되였으며 박화순, 김금성 등 공민들을 되찾아 지부에 망라시키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동포예술단체에 적극 참가하여 조중친선에 기여한 실례를 들면서 우리 공민들이 동포들의 활동에 참가해달라고 하였다.

그는 할빈시공민들은 지난 시기와 마친가지로 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중친선을 강화해나가는데서 해외공민된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지부에서는 모임참가자들에게 총련합회에서 보내준 새해 달력을 전달하였다.

음력설 맞으며 산하 공민 위문



총련에서는 음력설 맞으며 산하 공민들에게 명절축하와 축복을 전하였다.

각 회장들과 지부장들을 통하여 다년간 지부공민사업에 물심량면으로 돕고 지지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총련을 받드는 사업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한 지부장, 공민들에게 설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공민들은 총련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조직을 받드는 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다.



음력설인사를 전하는 심양시지부

설명절이 다가왔다. 야속한 코로나가 해를 넘기며 기승을 부려도 권헌 료녕지구협회 회장과 총련일군들은 관례대로 음력설위문품을 마련하여 로공민가정방문길에 올랐다. 이날이 대한이여서 날씨가 몹씨 추웠다.

우리는 먼저 심양시화평구서탑에서 살고있는 리옥자선생의 집을 찾았다. 바쁠텐데 이 대한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어서 아주 반갑다면서 리옥자선생은 아들에게 커피까지 시켰다.

2 년전 우리가 왔을때보다 몸이 더 불편하여 걷지를 못하고 의자에 앉아 동주봉,권헌.김영희라고 우리 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국방문시 김영희국장이 수고하였다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위문품과 조국의 달력을 보더니 새삼스럽게 자기처럼 조선에서 지원군 남편을 따라 중국에



온 공민들이 심양에는 김명덕, 렴순자, 박정옥뿐이라고 한탄하면서 흘러간 옛 추억을 더듬었다. 나는 서울출신이다. 1951 년 1.4 때 북으로 온 집식구가 들어와 공화국품에 안겨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며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재령녀자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이나 장학금을 받으며 무료로 공부하고 졸업후 고향을 지척에 둔 장풍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흘러간 그 청춘시절을 회상하였다.

남편 리종민은 길림룡정의 동북군정대학의학원에서 공부하고 1947 년도에 동북민주련군에

입대하여 동북해방전투에 참가하고 장강을 넘어 항주, 해남도까지 진격하였다. 1950 년 3 월에 독립 15 사포병퇀 위생대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정주에서 집결하고 그해 4 월에 부대를 따라서 조선에 진출하였다.

조선인민군 12 사에 속한 남편은 동부전선에서 군의로 락동강전선까지 나갔다. 일시적 후퇴시기에는 죽음의 고비를 넘으며 싸웠다.

리종민은 군의장으로 장풍중학교에서 리옥자선생을 만나 55 년에 결혼하고 지원군과 함께 58 년에 중국에 귀국하여 심양시제 3 인민병원에서 주임의사로 사업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리옥자선생은 손이 떨려도 사유가 민첩하여 말이 류수같았다. 구십로인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우리가 선생님은 몸은 불편하여도 구변이 좋다고 칭찬하니 준마같이 달리는 세월속에 나도 백발의 서리가 내리고 인생의 풍운속에서 이제는 늙어 말하는데는 강약이 부족하다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리옥자선생은 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에 배치받아 조선어문을 가르치면서 초기심양시공민애국사업에서 책임일군으로 활약하였다. 성격이 날카롭고 애국심이 강한데 사업에는 엄정하여 조국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위와는 타협을 몰라서 억울한 루명과 인신공격도 당하였다.

공화국창건 30 돐에는 재중조선공민축하단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한일도 없는 나를 부단장으로 불러주고 꿈결에도 뵙고 싶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회의에 참가하고 연회에도 참가하고 **김일성**광장에서 진행한 행사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다.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조국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적힌 명함과 선물까지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고 격정을 터치면서 추억은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수령님탄생 70 돐에도 못 잊을 영광과 배려를 지녔다. 일제시기, 리승만통치시기 살아온 나는 조국의 품속에서 교육받고 교편을 잡고 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 당의 품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따사로운 품이라는 것을 체험하였다.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공민사업이 곧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곤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억척스럽게 일하였다.

헤여진 일가친척이 고향에 있으니 죽지 않고 살았으면 조국통일이 된다음 만나볼것을 결심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민활동과 조국지원에 애썼는데 이제는 늙어서 안된다고 서운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90 인생 돌아보며 후회는 없는데 여생을 속절없이 보낸다고 개탄하였다. 그래도 어제는 제자가 찾아와서 설위문을 하였다고 자랑하면서 요즘 코로나시기에 다들 몸 조심하라고 일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다른 공민의 가정도 방문하여야 하기에 일어서니 리옥자선생은 본부사업에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면서 건강들 하라고 부탁하였다.

지원군남편을 따라 중국에 온 로공민들은 우리 공민활동에서 선구자의 열할을 하였다.애국의 한길에서 꿋꿋이 살아온 그들은 명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애국에 몸 바친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다. 조용히 로일군의 흘러간 파란만장 세월의 벅찬 인생경력을 들으면서 우리는 김옥자선생의 건강을 바라면서 새해를 축하하면서 집을 나섰다.



심양시 한춘자공민을 방문하는 장면

조국소식

womenminzudajiatiang

２０２３년 신년경축대공연 성황리에 진행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２０２３년 신년경축대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１일 저녁 수많은 수도시민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５월１일경기장은 당중앙의 령도따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며 굴함없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 청사에 불멸할 전진의 년륜을 아로새긴 끝없는 자긍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서곡 《종소리》, 《설눈아 내려라》로 시작된 대공연무대에는 인민에 대한 진함없는 사랑과 멸사복무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종목이 올랐다.

우리 당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뢰심을 더욱 굳게 간직한 천만인민이 스스럼없이 터치는 심장의 고백을 격조높이 구가한 설화시 《당이여 그대 있기에》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동으로 높뛰게 하였다.

한없이 숭엄한 격정이 뜨겁게 흐르는 속에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주체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지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며 ２０２２년의 갈피갈피를 자력부강의 혁혁한 투쟁화폭으로 빛내여주신 희세의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에 휩싸였다.

창공높이 울려퍼지는 아동대중창과 합창 《원수님 먼길 다녀오셨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들으며 관중들은 학생소년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려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희세의 가장 걸출한 수령을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녀성독창과 방창 《이 하늘 이 땅에서》, 《우리를 부러워하라》는 관람자들을 매혹시켰으며 출연자들과 관중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열정적인 교감속에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하여 공화국의 래일은 끝없이 찬연할것이라는 확신을 백배해준 대공연은 종곡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새해의 경축분위기를 더해준 대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제８기 제６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방략실행에 총매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줄기차게 열어나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희망찬 새해 주체112(2023)년의 아침이 밝아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건강하여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

온 나라의 거리와 마을마다에 위대한 강국의 공민된 커다란 긍지와 자랑을 안고 행복의 설날, 희망의 설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기쁨이 한껏 차넘친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돌발적인 보건위기와 자연재해가 겹쳐들고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최강의 절대적힘을 비축하여 최상의 국위를 떨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눈앞에 국방분야에서 이룩된 기적적성과들과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들, 함경남도 련포지구에 솟아난 세계굴지의 온실농장 그리고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부흥강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가슴뿌듯이 안겨온다.

그 기쁨과 행복이 그대로 감도는듯 수도의 곳곳에 꾸려진 꽃방들로 사람들이 찾아든다.

고마운 스승에게 드릴 꽃다발을 고르는 청년대학생, 공장의 혁신자총각에게 안겨줄 꽃다발을 선택하는 처녀들…

얼마나 환희롭고 희망넘친 우리의 새해인가.

뜻깊은 새해의 이 아침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심장마다에 간직하고 휘황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



관에 넘쳐 우리 국가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그 맹세를 안고, 행복과 기쁨을 담아싣고 이 땅 그 어디서나 밝은 목소리들이 내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진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송년의 언덕에서

이해의 마지막날이 흘러가고있다.

누구나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게 되는 이 시각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그토록 인민을 사랑하시여 올해에도 인민을 위한 헌신과 로고의 려정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와 맺은 뜨거운 정이다. 우리는 그이와 함께 또 한해 사랑의 세월, 정의 세월을 산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우리의 추억속에는 기적적으로 솟아오른 창조물들에 대한 긍지도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으나마 이바지해온 보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가장 귀중한 추억은 그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던 나날에 가슴속에 사무치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이를 모시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의 착공과 준공을 세상에 알리던 그날의 환희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올해에 그 어느때보다 많이 소집된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과 부문별회의에서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신 그이, 송화거리와 경루동,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을 알리는 그날들에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더욱 아름답게 펼쳐나가실 휘황한 래일을 그려보신 그이 아니시면 우리 인민은 이렇듯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주체 111(2022)년을 추억할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잊지 못한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뜻깊은 올해에 펼쳐진 수도건설의 새 전기는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살림집에서 부럼없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이 안아온것이다.

무려 1 200여건의 송화거리형성안과 1 234건에 달하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신 이야기, 전쟁을 방불케 하는 방역대전의 나날 1 772건에 2만 2 956페지에 달하는 방대한 령도문건을 보아주시고 중앙비상방역기관과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사실, 자신께서는 심한 고열속에 앓으시면서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생각으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몸소 가정에서 상비약품들을 준비하시여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감동깊은 이야기.

어찌 이뿐이랴.

련포지구에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문명



의 별천지, 농촌진흥의 새로운 변혁적실체를 일떠세우시려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야기,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 위험천만한 화선길들을 끝없이 찾고찾으신 이야기, 지난 5월 우리 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지역별봉쇄와 단위별격페조치가 실시되던 때에도 애기젖가루가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여주신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새해 첫날부터 전국의 학생들에게 만들어입힐 새 교복견본들을 일일이 보아주시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기술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신 사실…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워온다고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 정깊은 말씀은 세월이 가도 잊을수 없는 가장 귀중한 추억이다.

그렇다.

이해를 보내며 사람마다 간직하는 귀중한 추억속에 그이와 맺은 정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세월의 흐름속에 주체 111(2022)년도 지나간 한해로 될것이지만 이해에 쌓아온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혼연일체의 정은 래일의 모든 승리를 안아오는 무한대한 힘으로, 더 밝을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굳은 담보로 될것이다.

송년의 언덕에서 우리의 추억은 뜨겁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강산을 따사로이 비쳐주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신뢰심으로 불타오르는 인민의 추억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하리라.

수천만 t의 석회석박토를 보물로 전환

최근 국가과학원 규산염공학연구소에서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와의 창조적협조밑에 순천석회석광산의 수천만 t 에 달하는 석회석박토를 리용하여 많은 량의 세멘트를 증산할수 있게 하는 의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석회석생산과정에 나오는 석회석박토를 세멘트크링카생산용원료로 리용할수 있게 됨으로써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5개년계획기간 당이 제시한 세멘트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지금 대부분의 석회석광산들에서는 석회석박토량이 계속 늘어나 석회석채굴과 채석장정리, 운광조건이 어려워지고있으며 결국 세멘트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생산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있다.

순천석회석광산에서 전망적으로 채석장을 확장하고 락광정을 새로 건설하자고 하여도 막대한 량의 석회석박토를 처리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되였다고 한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늘이는데서 제기되는 석회석박토리용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규산염공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석회석박토를 리용하여 생산한 세멘트의 품질이 완전히 담보된다는 국가적인 품질인증시험결과를 얻어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로써 순천석회석광산의 수천만 t 에 달하는 석회석박토는 세멘트크링카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귀중한 원료로, 보물로 전환되였다.

월도간석지건설 완공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상징하는 변혁적실체들이 다련발적으로 펼쳐지고있는 속에 조국의 서해북변에서 대자연개조의 자랑찬 승전포성이 터져올랐다.

간석지개간에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의지로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완강히 이겨내며 월도간석지를 부흥강국의 재부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대계도간석지의 한끝인 철산군의 장송지구에서부터 월도, 보산지구를 련결시키며 아득히 뻗어나간 방조제들을 따라 륜환선도로가 형성되고 3 300 여정보의 드넓은 간석지가 새땅으로 전변됨으로써 농업의 지속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조국의 지도우에 서해의 해안선을 다시 그려넣은 월도간석지는 당의 부름이라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후손만대에 넘겨줄 강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참된 애국자, 바다의 정복자들의 불같은 충성심과 영웅적위훈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간직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홍건도간석지 2 단계 마감완성공사를 다그치는 어려운 속에서도 월도간석지건설을 동시에 립체적으로 전개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주체 108(2019)년 6 월 공사에 전격진입하였다.

간석지의 용감한 개척자들은 센바람이 자주 불고 기후변화가 변덕스러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연 5 550 여 m 에 달하는 도갱굴진과 140 여차례의 크고작은 발파를 들이대고 굴착기, 대형화물자동차들의 실동률을 끌어올려 매일 계획을 120%이상 수행하였다.

제방구간이 제일 길고 면적이 넓은 2 구역에 륜전기재들과 기계설비들이 집중되고 채석장들에서 분사업소별굴진경기가 순위를 다투며 벌어지는 속에 보산지구와 월도를 잇는 3 호방조제가 날마다 시간마다 눈에 띄게 쭉쭉 뻗어나갔다.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애국심에 떠받들려 수수천년 밀물과 썰물이 쉬임없이 뒤바뀌던 바다가 륙지로부터 아득히 밀려나고 드넓은 새땅이 일망무제하게 펼쳐짐으로써 월도간석지건설완공의 개가가 높이 울리게 되였다.



날바다우에 일떠선 대계도간석지





멋쟁이 2 층뻐스들이 거리를 누빈다

최근 공화국의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 로동계급이 새로 만들어낸 새형의 2 층뻐스가 운행을 시작하여 수도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를 누비는 멋쟁이 2 층뻐스를 바라보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보장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안고 짧은 기간에 2 층뻐스들을 훌륭히 생산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종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수도시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서 교통상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형의 2 층뻐스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은 불같은 열의 안고 2 층뻐스들을 짧은 기간에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2 층뻐스생산을 적극 다그치였다.

평양운수기술연구소의 기술집단은 2 층뻐스의 정면에 설치할 시계와 전광판을 새롭고 특색있게 만들어내기 위해 지칠줄 모르는 기술전, 탐구전을 벌려나갔다.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수도의 려객운수정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의해 멋쟁이 2 층뻐스들이 련이어 태여났다.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12 월 18 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험은 20m 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 대와 다스펙트르촬영기 2 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 까지 고각발사시킨 후 우주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장비에 대한 촬영조종지령과 자세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면서 자료전송장치들의 처리능력과 안전성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다고 하였다.



시험을 통하여 우주환경조건에서의 촬영기운용기술과 통신장치들의 자료처리 및 전송능력, 지상관제체계의 추적 및 조종정확성을 비롯한 중요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한데 대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발사의 최종관문공정을 거친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 년 4 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 호기 준비를 끝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요시험결과는 즉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지금으로부터 9년전 말도 넘기 힘들어 쉬고 간다는 마식령의 험준한 산봉우리에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난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이 건설되여 준공되였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눈이 내리는것으로 하여 스키를 탈수 있는 기간이 오랜 마식령스키장은 우리 나라의 강원도 법동군에 위치하고

있다.

스키장에는 40~120m의 폭을 가진 초급, 중급, 고급스키주로들이 련련히 뻗어있으며 국제적수준에 확고히 도달한 스키주로들이 무려 10개나 된다.

마식령에서의 스키타기에는 스케트, 썰매, 눈오토바이봉사 등 겨울철체육종목과 유희가 다양하게 결합되여있고 삭도의 시작점과 중간지점, 종착지점들에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 휴식장소들과 구급치료실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삭도축선상에 세워진 자동감시체계는 실시간감시로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고있다.

지하 3층과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마식령호텔 또한 세계적수준의 멋쟁이호텔로서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꾸려졌으며 수영장과 안마실, 종합상점 등을 포함하여 모든 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이처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마식령스키장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희한한 문명세계를 펼쳐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색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몸소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시고 한여름의 무더위와 12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건설장을 무려 5차례나 찾으시여 해발높이가 천수백m나 되는 스키장정점에까지 오르시면서 건설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였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규모가 큰 스키장을 10년동안 건설한다고 하는데 인민군대에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맡아 최단기간내에 끝내야 한다고 하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훌륭히 완공된 스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직 시운전을 해보지 못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삭도를 타고 정점까지 오르시면서 안전성과 편리성도 직접 료해하시며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삭도를 리용하면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마식령스키장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으로 훌륭히 건설되여 2013년 12월 31일 개장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순간부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은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이 되였다.

가족과 함께 마식령스키장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주조 무관단의 한 성원은 《마식령스키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대적인 스키장들중의 하나이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듯 훌륭하고 현대적인 스키장을 건설한 것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영웅조선만이 창조할수 있는 또 하나의 력사의 기적이다.》라고 하였다.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훌륭히 건설된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끝)











폭제의 《힘》을 짓누른 조선의 힘

지금껏 이 행성을 지배해온것은 강자는 약자를 다스리고 강자앞에서는 누구나 머리를 수그리든가 아니면 파멸되여야 한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힘의 론리》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은 부당한 힘을 휘둘러 세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만들고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이 저들의 요구에 순종할것을 강박하고 위협하였다. 이에 조금이라도 엇서나가거나 비위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나라들은 사정없이 제재를 가하고 대포와 군화발로 짓뭉개였으며 썩어빠진 《미국식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오늘까지 미국은 침략과 간섭,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무고한 인민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들씌워왔다. 이로 인해 이 행성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가는 피난민행렬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세계를 저들의 침략적요구와 리익에 부합되게 지배하기 위하여 미국이 휘두른것이 절대적인 힘을 상징하는 핵무기였다. 이런데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세력은 핵무기를 저들만의 독점물로 만들었다.오죽하면 미국의 한 동맹국의 정치가마저 미국은 세상을 핵무기를 가진 귀족과 보병노릇을 하는 농노로 갈라놓으려 하고있다고 불만을 터뜨렸겠는가.

미국에 의하여 오래동안 강요되여온 이 부당한 세계질서, 힘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유독 단호히 맞서 온것이 바로 가장 자주적인 나라 조선이였다.이미 오래전에 동방조선에서는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고 발전된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가 있으나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다는 유명한 자주의 선언이 울려나와 행성에 충격을 주었었다.

조선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지 않으며 그누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것도 절대로 용납치 않는다.

이런 조선을 잘못 보고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내리막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 미국이였다. 그러나 침략과 살륙이 체질화된 미제국주의는 여기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지난세기 60 년대에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조선령해에 침입시켰다가 배와 수십명의 선원들이 나포되는 수치와 망신을 당하였다.

당시 파렴치한 미국이 붙잡힌 《푸에블로》호와 선원들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어디를 폭격하겠다며 길길이 날뛰고 이에 놀란 대국주의자들이 전쟁이 터질가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조선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으나 평양에서 울려나온 선언은 《〈보복〉에는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폭탄같은 선언이였다.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미래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의 폭제에 맞설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일찌기 진리로 새기고 또한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억센 자주적신념과 배짱을 가진 조선이기에 지난 시기 그 누가 뭐라고 해도,그 어떤 제재와 위협을 받는다 해도 군력강화의 정정당당한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길에서 지구를 뒤흔든 정의의 핵뢰성이 울리고 2017 년 11 월에는 마침내 국가핵무력완

성의 력사적대업이 성취되였음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선언한 조선이였다.

그로부터 5 년후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여 핵보유국으로서의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었으며 전 지구권타격무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의 발사성공으로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이에 대해 제일 경악하고 공포에 떠는것은 미국이다.그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사용국이고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독점과 세계제패전략, 세계지배질서에 바로 조선이 통쾌한파렬구를 내였기때문이다

.힘도 어슷비슷하면 남을 넘볼수 없다.저들과 상대할수 있는 힘이 세상에 없을 때 미국은 강하였다.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미국을 상대해줄수 있는 힘, 절대적인 힘이 행성에 출현한것이다.《미국의 힘》.이것은 지금껏 미국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구호처럼 즐겨 웨쳐온것이다. 이 《힘》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위압하였고 세계는 그《힘》앞에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면안되였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미국의 힘》앞에서는 나약하였다.그러던 아메리카제국의 그 《힘》과 폭제의 날개가 조선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여지없이 꺾어지게 된것이다.

지난해 11 월에도 공화국에서는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추상같은 선언이 울려나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혼비백산케하였다.이로써 지구의 폭군 미국이 제멋대로 돌리던 행성의 어지러운운동이 드디여 강대한 힘에 부딪쳐 저지되고 정의와 진리의 힘이 지구를 돌리는 새로운 력동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지질학에는 땅속밑의 조화로 대륙이 통채로 움직여 이동하는《대륙이동설》이 있고 거대한 대륙에서 준대륙이 떨어져나가거나 바다였던 곳이 조개껍질을 이고 산줄기가 되여 솟구쳐오르는 《판괴구조설》이라는것도 있다.

세계의 지각변화를 일으키는이 거대한 사변처럼 강대한 조선을 지구의 축심으로 하여 이 행성이 도는 정치군사적지각변동의 놀라운 현실을 지금 세계는 목격하고있다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보며 당당히 맞서 그 위용을 과시하는 나라, 미국의 그 어떤 압력과 회유,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의 한길로 내달리며 정의를 선도하는 조선의 신비하고도 거대한 힘의 출현은 인류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아닐수 없는것이다.지금껏 인류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강국의 출현으로 미국의 부당한 《힘의 론리》도 박산이나고 새로운 힘의 론리와 주장이 행성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자기 중심의 세계질서에 순응할것을 강박하는 침략세력, 제국주의세력을 용납치 말고 정의의 강한 힘으로 짓눌러놓아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조선이 내세우는 새로운 힘의 론리이고 주장이다.

조선이 가진 세계를 쿵쿵 울리는 억센 힘은 이 행성을 자주와정의의 바른 궤도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 통일신보

총련부흥의 새시대, 진격로를 맨 앞장에서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들의 모임이 지난 11월 18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위원장, 각지 조청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에 이어 리광일위원장이 보

고를 하였다.

그는 강령적서한관철만이 조성된 엄혹한 정세와 중첩되는 난관속에서도 총련과 재일동포사회의 존립과 장래를 담보하고 조국과 보조를 맞추어 힘있게 전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형창조운동에 박차를 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청이 전형창조운동기간 청년맛이 나는 사업을 통해 폭넓은 동포청년들을 묶어세우며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창조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만이 있음을 굳게 믿고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에 총매진함으로써 뚜렷한 전진, 눈에 보이는 실적을 창조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조청본부 및 지부 일군들이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의 맨 앞장에서 총련부흥의 새시대, 진격로를 열어나갈 불타는 심정을 담은 토론들을 하였다.

끝으로 박구호 제1부의장이 모임을 결속하였다.

모임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재일조선학생들의 설맞이공연준비

조국에서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주체112(2023)년 설맞이공연에 일본각지 조선학교 학생대표들이 영상출연방식으로 참가하게 된다.

주체110(2021)년부터 악성전염병사태로 중지되였던 까닭이다.

조국에서는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이 조국에서의 설맞이공연에 화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TV를 통하여 관람할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었다.

공연에는 일본각지의 조선학교에서들에서 선발된 초, 중, 고급부 학생들 150여명이 설화와 합창, 무용, 민족기악연주 등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하게 된다.

이미 지난 12월 4일부터 8일에 걸쳐 조국에 보내는 영상촬영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5일간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이였지만 학생들은 영광의 무대를 마련해준 조국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박해와 차별의 바람세찬 이역땅 일본에서 조선사람된 긍지높이 떳떳이 살아가는 재일조선학생들의 름름한 모습을 훌륭히 보여줌으로써 설맞이공연을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영상공연준비에 참가하였다.

무용종목에 출연하는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3학년 고미순학생은 시연회를 통해 《공연을 통해 이역땅 일본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무서운 시련이 닥쳐와도 조국의 기상안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는 우리들의 신념을 보여주었다. 우리들은 조국의 배려로 설맞이공연무대에 오른 영광을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일념으로 공연종목을 수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역의 찬바람속에서도 태양민족의 기개를 떨치며 굳세게 자라나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설맞이공연은 새해를 맞이하는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앞날에 대한 락관과 신심을 더해줄것이다.



조국에 보내는 영상촬영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새해정초부터 남조선에서 올해전망에 대한 불안과 우려 확산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새해정초부터 2023 년이 남조선에는 가혹하고 심각한 위기의 해로 될것이라는 각계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있다.

우선 남조선 각계는 《지난해에 집권하자부터 북을 심히 자극하면서 스스로 북의 주적으로 다가선 윤석열정권이 계속 <즉각응징>, <정권종말>, <확전각오>와 같은 폭언을 쏟아내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확대강화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아 앞으로 조선반도정세가 더 험악해지면서 남북사이에 군사적충돌까지 일어날수 있다.》고 불안해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야당과 정치적적수들에 대한 탄압을 일층 강화하여 정치적대립과 싸움은 극도에 이를것이며 심각한 경제위기속에서 <3 대개혁>에 더욱 광분하는 등 로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에 대한 압박과 탄압으로 사회적갈등이 격화되고 혼란은 가중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더우기 윤석열역적패당이 《첨예한 대외적환경속에서 미국의 편에 설수밖에 없는 처지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더 큰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압박에 시달리게 될것이며 결국 더욱더 심각한 고립상태에 빠져들것》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이에 대해 언론, 전문가들은 《2023 년이 남조선에게는 더 심각한 위기의 해로 될것이다.》, 《경제가 더욱 <혹한기>에 빠져들것이며 사회적혼란이 우심해질것이다.》, 《남조선은 주변나라들의 패권싸움의 희생물로, 동네북신세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평가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윤석열식 공안정국》조성책동에 강력히 반발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공안정국》조성에 대해 각계가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농민단체소속 인물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고용로동부는 로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떠들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총파업후《화물련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리는가 하면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건설현장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면서 로동단체들을 압박하려 하고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2월까지 시민단체들에 지원한《지방보조금》의 사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며 특히《서울교통공사》는 오세훈시장의《무관용원칙》에 따라《장애인관련예산확대》를 주장하면서 벌린《장애인철페련대》의 출근길지하철도시위와 관련하여 6억원(남조선돈)수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대대적인 탄압책동에 대해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로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윤석열정권의 전방위적인 압박, <보안법>위반사건수사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리명박정부

의 <공안탄압>을 련상시킨다.》고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역적패당이 《정부보조금》사용문제를 가지고 저들의 《로동개혁》추진에 항거해나서는 로동조합들을 압박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동원하여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방보조금》사용과정을 조사하는것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총파업이 끝난 지금도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폭력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까지 하고있다.》, 《윤석열정권과 서울시당국은 자기를 반대하는 단체들을 토끼몰이하고 주적잡듯이 하겠다는것》이라고 비판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집권후부터 <보안법>위반사건수사가 늘고있으며 <자금줄>을 로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주요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리명박때와 다를뿐》이라고 하면서 《권력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태 모두를 <신공안정국>으로 볼수 있다.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 로동문제 등을 활용한 공안정국을 유지하려는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러면서 《보안법》사건에 한정되였던 《공안정국》의 개념이 최근에는 다양한 사건에 적용되고있으며 이러한 《윤석열식 공안정국》에 대하여 각계의 분노와 반발이 고조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민족끼리

윤석열역도가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해 각계의 비난 고조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역도가 리명박역도를 비롯한 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한것과 관련하여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각계층은 《윤석열이 <국민통합>을 리유로 리명박을 사면하였는데 국민의 과반수가 리명박사면을 반대하였다. 과연 윤석열이 입에 올린 그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리명박은 판결이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사죄도 반성도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좌절>만을 키울뿐》이라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또한 리명박역도뿐 아니라 박근혜집권시기의 부정부패범죄자들을 사면시킨데 대해서도 《적페를 부활시키려는 행위》, 《리명박부패세력과 박근혜적페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사면》, 《공정하지 못하고 몰상식한 내편챙기기이며 특혜사면》이라고 신랄히 규탄하고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과거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사하여 감옥으로 보낸 인물들을 자기 손으로 풀어주는 꼴이 되였다.》, 《자기의 수사를 자기가 부정하였다.》고 조소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저들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 <법치>를 스스로 흔들고 그 기만적실체를 다시금 드러내보였다.》고 폭로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 리사회 기바꿈회의 및 제2기 1차 리사회 진행

[본사소식 윤청 기자] 1월 11일,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는 심양 룡부호텔에서 리사회 기바꿈 및 제2기 1차 리사회를 개최했다.

애심회 상무부회장 박학근의 사회하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리사회 기바꿈 정황보고, 제1기 리사회 사업보고, 재무감사보고, 제1기 리사회 사업감사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애심회 성립후 7년간 총 3.4만여명이 애심기부에 동참했고 기금모금액이 도합 2,143여만원에 달했으며 만원 이상 후원한 후원자가 232명에 달했다. 각종 자선사업을 위해 941만원을 지출했고 기금자산적금은 1,402만원에 달했다. 애심회는 설립후 료녕성 각지를 누비며 3,400여명의 생활고에 처한 학생, 로인 등 약자들을 도왔다. 그중 223명의 빈곤대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29호의 가정에 치부의 꿈을 심어주었고 불행이 닥친 가정에 삶의 희망을 전했다.

애심회는 현재 료녕성적십자회 산하 단체이다. 그동안 애심회는 국가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와 《기금회관리조례》 등 법규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애심사업메커니즘 건설, 빈틈없는 <기금회> 제도건설 등을 통해 전 성 나아가 전국 조선족사회에 영향력 있는 정규화, 규범화된 법인단체로 거듭났다.

료녕성적십자회 부회장 장춘왕은 축사에서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 지난 7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며 앞으로도 계속 료녕성적십자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희망했다.

제2기 1차 리사회에서는 박성관, 박학근 등 11명을 애심회 제2기 리사로 선출하였고 초대회장 박성관을 리사장으로, 박학근을 부리사장으로, 림명광을 비서장으로, 홍해신을 감사장으로, 진창순과 김인근을 감사로 선출했다.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회장, 리홍광 료녕성조선족련의회 회장, 길경갑 심양시조선족련의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조선족 민간단체 책임자, 조선족중소학교 책임자 등 도합 10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2015년에 설립된 료녕성한마음애심기금회는 국내 조선족사회의 유일한 자선법인단체로 '애심, 봉사, 화합, 발전'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다년간 료녕성 자선사업을 위해 력력한 발자국을 남겨 사회 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협 길림성 제13기 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조선족 18명

2023년 1월 10일 정협 길림성 제12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 1월 10일, 길림성 정협 제12기 26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사진:1월 17일 오후 성정협 13기 1차 회의가 장춘에서 승리적으로 페막되였다.

장춘에서 소집되였다. 성정협 주석 강택림이 페막회에서 연설했다.

회의에서는 정협 길림성 제12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심의통과하고 정협 길림성 제 12 기 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제안사업정황에 관한 보고를 심의통과했으며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통과하고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의정(초안)을 심의통과했으며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일정(초안)을 심의통과하고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위원 명단을 심의통과했으며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위원 조편성 및 소조소집인 건의명단(초안)을 심의통과하고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비서장, 부비서장 건의명단(초안)을 심의통과했으며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제안심사위원회 건의명단(초안)을 심의통과하고 정협 길림성 제 13 기 위원회 제 1 차 회의 사업기구(초안)을 심의통과했으며 주석회의에 수권하여 정협 길림성 제 12 기 위원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안을 심의하도록 할 데 대해 심의통과했다.

정협 길림성 제13기 위원회 위원은 총 509명인데 그중 18명이 조선족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리룡희, 김용, 리민화(녀), 리해란(녀), 리해옥(녀), 리예, 최봉명, 박은화(녀), 권휘, 리수옥(녀), 목은위(녀), 지춘강, 김창애(녀), 안택만, 권정자(녀), 김수호, 강호권, 석기화(녀) 래원: 인민넷-조문판



연길, 2022년 전국 현역관광 영향력 100강현에 입선

일전에 소후관광은 '2022년 전국 현역관광 영향력 100강'순위를 발표했는데 연길시는 16위로 전국 20강 현역 순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순위는 2022년 소후관광 종합추적모니터링 데터로 검색지수, 운영지수, 여론지수 3가지 차원에서 현역관광 브랜드의 인터넷 전파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길시는 3가지 차원에서 총점 90.0점으로 전국 100강 현역 16위를 차지했으며 또 '2022년도 가장wow한 빙설관광 현역상'도 수상했다.

2022년, 연길시는 각종 미디어플랫폼, 스마트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목적지의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전파 전략을 모색하고 자원을 깊이 파고들어 자원자원의 우세, 력사, 민속, 문화 우세를 현역관광 발전우세로 빠르게 전환시키고 생태우선, 록색발전을 견지하며 '관광+' 문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도시 경제사회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올해 양력설 련휴기간 연길시 관광경제는 겨울빙설제품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3만1000명의 관광객들이 제10회 연길 국제빙설관광축제의 주 행사장인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2023년 연길관광은 좋은 출발을 했는바 CCTV <경제채널> CCTV 국제채널 <중국어뉴스>, 길림TV 등 프로그람에 잇따라 보도되였다.





훈춘, 안도 '중국 가장 아름다운 현역'으로

'2022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현역 차트(榜单)'가 2022년 12월 27일 제18회 중국(심수)국제문화산업박람교역회에서 발부되였다. 길림성에서는 5개 현, 시가 입선한 가운데 우리 주의 훈춘시, 안도현이 '2022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현역 차트'에 올랐다.

알아본 데 따르면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현역 차트'는 생태미, 인문미, 산업미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그 어떤 상업 요소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공익성 차트이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리념, 전역 관광의 대대적인 발전과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정책의 인솔 아래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현역 차트'를 발부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전파하며 향수하는 것으로 억만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 가능한 관광 목적지를 제공해 전역관광과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현역을 위해 보다 잘 봉사하고 현역의 경제 발전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현역 계렬 활동 조직위원회는 문화관광투자기구 및 주류매체와 련합으로 '아름다운 중국 행·가장 아름다운 현역으로' 행사를 펼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조하고 전파하고 향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현역을 위해 봉사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량인철, 길림성 부성장으로 임명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명명단 결정
(2023년 1월 12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통과)

량인철을 길림성 부성장으로 임명한다.

량인철, 남, 조선족, 1965년 출생, 중국공산당 당원, 길림성 룡정시사람.

량인철은 연변대학당위 부서기; 연변주당위 상무위원, 통일전선부 부장; 연변주당위 상무위원, 주규률검사위원회 서기; 주감찰위원회 부서기, 대리주임; 길림성경제관리간부학원 당위부서기, 원장 등 직무를 력임했다.

2021년 6월, 량인철은 연변대학으로 돌아가 이번 임명전까지 당위서기를 맡았다. /인민넷



채홍성, 연변대학 교장으로 부임

연변대학 공식사이트 '지도기구' 코너의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 채홍성(蔡红星)이 이미 연변대학당위 부서기, 교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채홍성의 략력은 다음과 같다.

채홍성, 남, 조선족, 1976년 12월 출생, 재직연구생 학력, 중국공산당 당원, 그전에 통화시당위 상무위원, 통일전선부 부장 담당.

2022년 12월, 길림성당위 조직부는 성관할간부 임직전 공시공고를 발표했다. 그중에는 채홍성이 성소속 본과대학교 정직을 맡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였다.

연변대학은 '교육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재지 연길시에 위치해있는 국가 '쌍일류' 건설대학교, 국가 '211공정' 중점건설대학, 서부개발중점건설대학, 길림성인민정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중점적으로 지지, 건설하는 대학, 길림성인민정부와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지, 건설하는 대학이다.

최초 수여! 조선족기업가 권충광, 북경시정협 위원 최고영예 수상



12월 28일 개최된 정협 북경시 제13기 위원회 총결 및 표창 대회에서는 13기 북경시정협위원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과 '경화동심상' 추천상을 수여했다. '경화동심상(京华同心奖)'은 최초로 설립된 것으로 북경시정협 위원의 최고영예이며 이번 대회부터 매회 말미에 한번씩 선정한다.

북경 중기화자산평가유한책임회사(中企华资产评估有限责任公司) 리사장 권충광(权忠光, 조선족) 등 정협위원 12명이 '경화동심상'을, 왕이신(王以新) 등 위원 22명이 '경화동심상' 추천상을 받았다.

정협 북경시위원회가 '경화동심상'을 설립한 취지는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하고 고품질의 의견을 제출하며 결책의 최적화와 실행을 촉진한 위원, 대중과 밀접하게 련계하여 널리 공감대를 모으고 합력을 결집한 위원, 정치협상회의 제반 직무 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탁월한 성과가 두드러지고 모범적인 위원, 중대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용감하게 지고 탁월한 공헌을 한 위원, 민족단결과 조국통일을 수호하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중대한 영향을 산생한 위원을 표창하기 위한데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료동반도 박가골의 조선족들-

한창희

얼마전 료동반도 영구시에 출장나갔다가 전부터 소문들어 오던 이곳 박가골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마침 시정부 조세신국장이 길안내를 서주겠다고 나서서 나는 상상외로 아주 순조롭게 개주 진툰향 박가골(朴家沟)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다.

박가골은 향정부 소재지에서 10 여리 떨어진 풍치좋은 골안에 자리잡고있었다. 옛날에는 초가집들이 산기슭에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다지만 지금은 현지의 화강석으로 네모반듯하게 지은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앉아 제법 살기좋은 새마을을 형성하고있었다.이 마을 촌장집에서 나는 박가골 박씨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촌장의 소개를 들었으며 마을의 치보주임으로 일하는 박금관(43 세)과 촌부기원으로 일하는 박금해(47 세) 등 이 마을 조선족형제들도 만나보았다.

1, <우리두 조선족이웨다!>로인의 뜨거운 심장속에서 우러나온 이 웨침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1982 년 중국대륙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도밑에 인구에 대한 보편적조사가 진행되였다.

장장 10 년간이나 10 억인민을 짓누르고 괴롭혀오던 <문화대혁명>에 종지부를 찍고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로 특징지어진 사회주의 새시기의 서막을 활짝 열어놓았던 이때. 박가골 박씨들은 <민족성분의 회복 및 개정문제를 처리하는 원칙>에 관한 국무원통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들의 조선족성분을 회복해줄것을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학자들의 조사와 연구에 의하면 이 마을 박씨네 선조는 후금 천총년간(1627-1636 년)에 료동일대에 들어와서 누르하치의 내무부 포의,(包衣, 가정노비 또는 농노)로 고역살이를 하다가 장친왕수하의 양홍기에 편입되였으며 후에 누르하치가 료동반도의 개주일대를 점령하자 이곳 장원에 끌려와 황실에 바치는 량곡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오늘 마을이 들어앉은 이 골안의 개척자가 다름아닌 그들이였기에 마을이름도 처음부터 박가골이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누르하치의 후금병사들에게 붙잡혀 산설고 물설은 황막한 료동땅에 끌려들어온 이곳 박씨네 선조 박의부로부터 세세대대로 갖은 민족적 수모와 수난을 당하며 사회력사적원인으로 하여 부득불 자기의 진실한 족별까지 속이며 살아와야 하였던 그들이였지만 3 백여년 세월이 흘러간 오늘.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적분위기가 짙어가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의식구조가 형성된 조건하에서 그들은 떳떳이 자기의 피줄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집념으로 잃었던 조선족성분을 회복하려고 떨쳐나섰던것이다.

박씨가문의 제 12 대 후손인 박경문로인을 비롯한 이 마을 박씨들은 먼저 촌정부와 향정부에. 후에는 현정부와 시정부에 련이어 찾아가서 자기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이대였다.

<우리두 조선사람이웨다!>

팔순이 넘은 이 마을 박경문로인의 뜨거운 심장속에서 우러나온 이 웨침은 수백년동안 자자손손 지펴오던 민족얼의 발로였다. 비록 조선말을 번질줄 모르고 조선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구십고개가 바라보이는 인생의 황혼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조선말을 했지요. 우리두 조선사람이웨다! 나는 조선말을 못하지만 박씨성을 가진 조상의 후손이웨다!>

이와 같이 로인은 오랜 세월 가슴속에 쌓이고 맺혔던 민족의식의 최고음을 터뜨렸던것이다.

박가골 박씨들의 강렬한 요구에 의해 현정부와 시정부에서는 민족성분을 회복 또는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과 료녕성정부의 통지정신에 비추어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마침내 이 마을 64 세대 277 명의 박씨주민들에게 조선족성분을 회복해주었다.

3 백여년 긴긴 세월 달갑지 않게 써오던 타민족성분을 속시원히 팽가치고 호적부에다 처음으로 <조선족>이라고 등록하던 그날,박가골 박씨들은 마치 민족 최대의 명절을 쇠는듯한 기분으로 서러서로 이 희소식을 전하면서 다함없는 긍지와 기쁨을 나누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1982 년도 인구조사때 료녕성 본계현 산성자향 박보촌, 구채욕, 화피욕 등 마을의 1,230 명의 박씨들과 하북성 청룡현 팔도하자향 탑구촌, 대장자향 맹가와포의 350 여명의 박씨들도 이곳 료동반도 박가골의 박씨들처럼 당지정부의 승인을 받고 세세대대 오매에도 그리던 조선족성분을 끝내 되찾았다고 하는데 이들 박씨네 선조들 역시 3 백여년전에 중국에 들어운 조선인들이였다고 한다.

우리 중국조선족공동체의 가장 오랜 성원이자 새로운 성원인 이 박씨네들의 신생을 나는 온 겨레와 더불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말을 새삼스럽게 되새겨보았다.

2, 동족과 멀리 떨어진 료동반도 한 벽지에서 외롭게 살아오면서도 백의의 넋을 잃지 않은 박가골의 박씨들

박가골은 료동반도의 서북부, 료하삼각주의 동쪽켠에 병풍처럼 뻗어나간 연자산아래 넓은 골안에 자리잡고있다.

살기좋은 벌방지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산골안에 들어와서 수백년 세월 살아오는 동안 이 마을 박씨들이 겪은 민족적수모와 수난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청나라때에는 만주 8 기에 귀속되여 민족성분을 만족으로 등록했으며 <문화대혁명>때에는 또 만족을 한족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 그들이다.

일찌기 박씨가문의 제 4 대 때에 이 마을 박씨와 위씨 사이에 3 무의 밭은 놓고 분쟁이 일어났다. 위씨가 정란기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관청에 몰려가서 박운덕이가 자기네 땅을 빼앗았다고 고발했으나 원래 위씨가 생떼질을 쓴것이라 관청에서는 그 땅을 박운덕의 소유로 한다는 판결을 내리였다.그러자 위씨는 분을 참지 못해 박운덕의 집문에 제 목을 달아매고 죽어너부러졌다. 결국 인명사건이 발생되여 관청에서는 박운덕을 붙잡아가두고 그에게 빨간 수의를 입혀 사형에 처하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누군가 박씨는 만주귀족집 포의라고 관청에 귀뜸했기때문에 박운덕은 겨우 풀려나오기는 했으나 그 3 무의 땅만은 하는수없이 위씨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곳 박씨가문의 제 12 대 후손인 박경문로인의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80 여년전까지만 해도 마을에는 조선말을 하는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중화민국초기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수다. 우리 할아버지때 동네에는 외지에 나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종 조선상인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간에 조선말을 했지요.

박씨가문에 제 1 대 박의부가 료동에 들어온 때로부터 2 백여년 세월이 흘러간 민국초기까지도 조선말을 잊지 않았다는 이 마을 박씨들, 그들은 <정묘호란(1627 년>때 청군에게 붙잡혀 중국에 들어와 백여년이 지난후까지도 조선식집에서 조선옷을 입고 살면서 조선풍습을 따랐고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하북성 풍윤현 고려포의 주민들과 더불어 우리 겨레의 끈질긴 피줄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겠다.

비록 그후 마을에 만족과 한족 등 타민족들이 많이 이사해 오고 장기간 다른 지방의 조선족들과의 접촉과 련계가 완전히 끊어진 조건에서 박가골 박씨들은 차츰 조선말을 잊어버리고 만어로 의사표달을 하게 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장속에는 의연히 우리 민족의 고유한 피가 끓어번지고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조선사람이라는것만은 잊지 않았다.

<우리는 조선사람이다!>

이 마을 박씨로인들 그 누구나 림종시에 자손들에게 꼭 남기는 유언이였단다.

수백년간 대를이어 전해내려온 이 한마디 유언이야말로 박씨 후손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리여 동족과 멀리 떨러진 외로운 환경속에서도 내내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의식을 잃지않도록 그들을 떠받들어준 정신적바탕이였다고 하겠다.

민국년간에 이 마을의 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이름을 형가촌(邢家村)으로 고치자고 들고일어났다. 그래서 박씨네와 형씨네 사이에 마을 이름을 계속 박가골로 두느냐, 아니면 형가촌으로 고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대분쟁이 벌어졌다.

형씨들을 저들이 마을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리유로 현관청에 신고서를 냈지만 박씨들을 조상대대 물려받은 마을이름을 절대로 고칠수 없다고 여기고 결사적으로 버티여 싸움으로써 끝내 박가골이란 마을이름을 지켜냈던것이다 ……

<상록수>



중국소식

zhongguoxiaoxi

중국 전염병예방통제 너무 빨리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전문가 응답

중국 전염병예방통제를 지나치게 빨리 완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전염병대응지도소조 전문가조 조장 량만년은 29일 북경에서 취재를 받을 때 중국 전염병예방통제정책조정은 병원체와 질병에 대한 인식, 군체면역수준과 위생건강시스템 저항능력, 사회공공위생개입조치 3자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현재 조정은 적합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의한 것이며 중국 예방통제의 실제와 부합된다고 밝혔다.

량만년은 중국은 2020년 전염병예방통제부터 시작하여 3가지 방면의 요소를 밀접히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독성, 위해성과 같은 병원체, 질병에 대한 인식이였고 둘째는 군체면역수준과 위생건강계통의 저항능력, 특히 예방통제능력과 의료구조능력에 대한 판단이였으며 셋째는 사회공공위생 개입조치였다. 중대한 전염병 앞에서 중국은 계속 이 세가지 방면에서 균형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고려했다.

량만년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기본리론 기틀과 사유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인식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군체면역수준이 점차 건립되며 저항력인성이 증강됨에 따라 중국은 시기와 형세에 맞게 진료방안과 예방통제방안을 끊임없이 최적화했다. 2020년이래 9개 버전의 예방통제방안, 20가지 최적화 조치, '새로운 10가지 조치'로부터 '을류 전염



병 을급 관리'로 조정하기까지 그 어느 하나 중국의 이 세가지 요소에 대한 균형결과를 체현하지 않은 것이 없다.

량만년은 이런 조정은 완전하게 방임하고 관리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자원을 가장 중요한 예방통제임무와 구조치료임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의 빠르고 이른 문제는 력사가 증명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조정이 적합하고 과학적이고 법에 의한 것이며 중국의 예방통제 실제에 부합된다고 인정한다."

국외 언론이 중국이 바이러스유전자서렬 데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 류행병학 수석전문가 오존우는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 바이러스병예방통제소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가 바로 전국 바이러스에 대해 분석, 서렬테스트, 보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는 무한에서 최초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유전자서렬을 세계보건기구 독감공유플랫폼에 올려 여러 국가들에서 이 유전자서렬에 따라 진단시제와 백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후 중국 전염병은 주요하게 경외에서 중국 경내로 류입돼 본토 전파를 일으

켰는데 매번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가 새로운 변이주를 포착할 때마다 모두 제때에 업로드했다고 말했다.

오존우는 "이번 전염병상황에서도 중국에는 9가지 오미크론변이주가 류행했는데 이런 결과는 모두 세계보건기구와 공유했는바 중국은 어떠한 비밀도 없이 모든 사업을 전세계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변이주를 예방통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량만년은 중국은 병원체 변이정황모니터링을 아주 주목하고 있고 전세계 병원체모니터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새로운 변종이 발견되거나 변이로 인한 바이러스 병원성, 전파력, 독성 등 면에 변화가 발생하면 중국은 제때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여 예방통제방안, 의료구조치료 등 면에서 상응한 최적화 보완과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음성 회복후에도 나타나는 8가지 증상 회복시간표



많은 사람들이 음성회복후에도 신체에 몇가지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발병 과정과 법칙으로서 일정한 회복기간이 있으므로 너무 긴장해할 필요가 없다.

기침: 대다수 2주내에 증상이 완화돼

북경협화병원 호흡기위중증의학과 부주임 서개봉 교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후 기침이 평균 2주 정도 지속되며 어떤 환자는 4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허약함과 무기력함: 대다수 2주 이내에 완화돼

북경우안병원 감염종합과 주임의사인 리동증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후 지속적인 무기력증과 심지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보이는데 흔히 2주 이내에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응둔감: 10일-15일후 점차 사라져

일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는 회복후 스스로 반응이 둔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강소성 남경고루병원 신경내과 주임의사인 리경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이후 단기간내에 어지럼증, 현기증, 집중력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비교적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대부분 10일-15일 이후에 점차 사라진다고 밝혔다.

후각과 미각 둔화: 대다수 1개월 이내에 회복

음성회복후에도 음식의 향을 맡을 수 없고 음식의 신맛, 단맛, 쓴맛, 짠맛을 느낄 수 없을 수 있다. 대부분의 후각, 미각 둔화현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후 한달 이내에 회복된다.

탈모: 두세달이면 증상이 사라져

많은 사람들이 '양성'이후 탈모가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절강성 항주시제3인민병원 탈모전문의 대엽근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후 바이러스가 모낭 주변에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열, 휴식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악화시킨다.

탈모는 음성회복후 45~60일 정도 지나면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두세달의 회복을 거치면 탈모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월경불순: 증상이 호전된 후 회복돼

많은 녀성들이 '양성'이후 생리가 비정상이라고 말한다.

절강성 항주시제1인민병원 산부인과 주홍리는 전염병상황이 심해지면 일부 녀성들은 불안하고 긴장한 정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정신적, 정서적 변화는 내분비계통에 영향을

미쳐 월경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상이 호전되면 생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두통: 2주 이내에 완화돼

중일우호병원 호흡기내과 부주임의사 하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두통이 생기면 1~14일 정도 지속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불면증: 2-3일이면 호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회복과정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수면시간이 짧으며 잠이 옅게 들고 꿈을 많이 꾸는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복단대학 부속화산병원 감염과 주임의사인 장위민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불면증이 지속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적 요인이라면 약 2~3일 정도 지나면 호전되고 병적 요인이라면 7~10일 호전되며 그 이상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래원: 인민넷

올해 음력설려객발송량 연인원 20.95억명에 달할듯!



6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음력설려객운송서비스보장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통운수부문 책임자들은 올해 음력설려객운송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음력설기간 려객총량 약 20.95억명으로 동기대비 99.5% 증가될듯

올해 음력설려객운수는 1월 7일부터 시작되여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지속된다. 음력설려객운수 각항 준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였다.

이왕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음력설려객운수 승객류동량은 전염병 고봉기와 겹쳐 최근년래 불확정성이 가장 많고 상황이 가장 복잡하며 어려움과 도전이 가장 큰 한차례 음력설려객운수로 될 것이다.

초보적 분석판단에 따르면 음력설운수기간 승객류동 총량은 20.95억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에 비해 99.5% 증가하고 2019년 동기(29.8억명)의 70.3%로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려객류동구성으로 볼 때 친척방문류동이 음력설려객운수량의 55%에 달하고 로무류동이 24%에 달하며 관광과 상무려행 출행이 10%를 차지할 것이다. 많은 대학들에서 음력설려객운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가용, 성간카풀, 맞춤형 객운 등의 출행비률이 진일보 향상되고 고속도로 소형 차량 하루 평균 교통량이 2620만대에 달해 지난해 동기에 비해 3.6% 증가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2022년 중국 동력엔진차량 보유량 4.17억대, 운전자 5억여명



공안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전국 동력엔진차량 보유량은 4.17억대에 달했는데 그중 자동

차가 3.19억대였다. 동력엔진차량 운전자는 5.02명이였는데 그중 자동차 운전자가 4.64명이였다. 2022년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동력엔진차량은 3478만대이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는 2923만명이였다.

새로 등록한 동력엔진차량 3478만대, 새로 등록한 자동차 2323만대

2022년말까지 전국 동력엔진차량 보유량은 4.17억대였는데 페기등록량을 절감하면 2021년보다 2129만대 증가하여 5.39% 성장했다. 2022년 전국 새로 등록한 동력엔진차량은 3478만대였다. 자동차보유량이 3.19억대에 달하여 동력엔진차량 총량의 76.59%를 차지했으며 2021년보다 1752만대 증가해 5.81% 성장했다.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자동차는 2323만대이다. 오토바이보유량이 8072만대에 달해 동력엔진차량 총량의 19.38%를 차지하고 2021년보다 513만대 증가하여 6.79% 성장했다.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오토바이는 1130만대였다.

전국 84개 도시 자동차보유량 백만대 초과

전국의 84개 도시의 자동차보유량이 백만대를 초과해 동기대비 5개 도시가 증가했으며 39개 도시가 200만대를 초과하고 21개 도시가 300만대를 초과했다. 그중 북경, 성도, 중경, 상해가 500만대를 초과하고 소주, 정주, 서안, 무한이 400만대를 초과했으며 심천, 동관, 천진, 항주, 청도, 광주, 불산, 녕파, 석가장, 림기, 장사, 제남, 남경 등 13개 도시가 300만대를 초과했다.

동력엔진차량 운전자수 5.02억명, 44만명 C6 운전허용차종 면허 획득

2022년말까지 전국의 동력엔진차량 운전자수는 5.02억명을 초과했는데 그중 자동차 운전자수가 4.64억명을 좌과해 운전자 총수의 92.54%를 차지했다. 2022년 전국에서 새로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2923만명이였다.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동력엔진차량 면허증 신청수령과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62호)에는 '경량견인트레일러' 운전허용차종(C6)를 신규증가했는데 목전 이미 C6 운전허용차종 면허 획득자수가 44만명에 달하여 군중들이 소형캠핑카 출행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킴으로써 캠핑관광 새 업종형태의 발전을 촉진했다. /인민넷

최신! 전국 각 지역 최저임금표준 공포



1월 2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전국 각 지역 최저로임표준상황(2023년 1월 1일까지)을 발부했다. 월 최저로임표준으로 볼 때 상해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590원으로 1위이고 심천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60원으로 2위이며 북경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20원으로 3위이다. 총체적으로 볼 때 14개 지역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000원 또는 그 이상에 달했다.

새해, 여러 지역에서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

2023년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했다.

그중 2023년 1월 1일부터 하북성은 새로운 월 최저임금표준을 실행했는데 각각 2200원, 2000원, 1800원 3개 단계로 나누었고 조정후 대응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각각 1단계 시간당 22원, 2단계 시간당 20원, 3단계 시간당 18원이다.

또한 2023년 2월 1일부터 귀주성의 최저임금표준은 1류 지역 월 1890원, 2류 지역 월 1760원, 3류 지역 월 1660원으로 조정된다. 비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1류 지역

시간당 19.60원, 2류 지역 시간당 18.30원, 3류 지역 시간당 17.20원이다.

상해 월 최저임금 2590원, 전국 최고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비전일제 취업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표준으로 보면 상해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590원으로 전국에서 1위이고 심천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60원으로 2위이며 북경의 월 최저로임표준이 2320원으로 3위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북경이 2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4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2000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표준 상황을 보면 제1등급 월 최저임금표준이 2000원 및 이상인 지역은 14곳으로 늘었다.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하북(220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복건(2030원), 호북이(2010원), 하남(2000원).

관련뉴스세가지 양로 추가, 어떻게 선택?



개인양로금, 상업양로금, 특정양로저축, 당신의 양로에 세가지 새로운 선택사항이 추가되였다. 부동한 사람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



◆제3지주의 구성부분

복단대학 금융연구원 동희묘는 개인양로금, 상업양로금, 특정양로저축은 사실 모두 양로보험제도의 제3지주(第三支柱)에 속하는 구성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중 첫번째 지주는 기본양로보험으로서 주체부분이며 현재 적용 대상자수는 10억 400만명에 달한다. 두번째 지주는 기업년금과 직업년금으로 2021년말에 이르기까지 두가지 년금에 참가한 종업원은 7000만명 이상이다. 세번째 지주에는 개인양로금과 기타 개인상업양로금 업무가 포함된다.

◆부동한 사람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

세가지 류형의 상품은 특점이 다르기에 주민은 자신의 위험 선호도, 류동성 수요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양로금 자금구좌는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재테크,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 공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그중 개인양로금 업무를 개설한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저축예금(특정양로저축 포함, 기타 특정 목적의 저축 제외)은 모두 구매범위에 포함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세 세률이 높은 주민은 개인양로금 가입을 고려해 개인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개인양로금이 투자하는 상품은 상대적으로 온전하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례하면 젊었을 때 권익류 상품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고 정년이 가까워지면 점차 고정수익 상품 구성을 늘이는

등 자신의 년령요인을 고려하여 투자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업양로금은 양로구좌와 지속양로구좌의 이중구좌 조합을 설정하고 양로자금의 장기 투자와 개인 년령별 단계의 류동성의 이중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특정양로저축에 대해 동희묘는 보편적 혜택과 로후성을 모두 고려하고 제품 기간이 길고 수익이 안정적이며 원리금이 보장되고 금리 하락 주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고정할 수 있어 저위험을 선호하고 류동성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으며 고정 수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양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넷



今年这份“民生清单”如何影响你我？

近期，中央部委年度工作会议密集召开，各部门有关负责人集中发声，一系列政策陆续发布。“新华视点”记者梳理了多个领域2023年聚焦民生关切的重要举措。

就业：帮助高校毕业生、农民工、脱贫人口等重点群体就业创业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相关负责人表示，人社部将着力强化就业优先政策，突出对就业容量大的服务业、小微企业、个体工商户稳岗扩岗支持。支持灵活就业健康发展，支持零工市场建设，落实新就业形态劳动者权益保障政策，继续推进职业伤害保障试点。

今年高校毕业生预计达1158万人，人社部将把高校毕业生就业作为重中之重，对未就业毕业生实施服务攻坚，对困难毕业生开展结对帮扶，同时深化百万就业见习岗位募集计划，促进失业青年尽快融入市场。

针对农民工就业，今年人社部将健全统筹城乡的就业政策体系，坚持外出转移就业和就地就近就业并重，健全劳务协作机制，打造一批劳务品牌。

财政部门也将统筹运用财政政策工具，多渠道支持稳岗扩岗，帮助高校毕业生、农民工、脱贫人口等重点群体就业创业。

物价：守稳护牢百姓“米袋子”“菜篮子”

物价稳，民心暖。百姓开门七件事，每件都与价格密切相关。

近段时间以来，各地各部门落实中央部署，统筹做好保供稳价，守稳护牢百姓“米袋子”“菜篮子”。

国家发展改革委将加强重要民生商品保供稳价，压实“菜篮子”市长负责制，强化生猪产能调控和猪肉储备调节。适时启动社会救助和保障标准与物价上涨挂钩联动机制。加大价格监管力度。

医保：持续挤压药品耗材虚高价格水分

2023年医保改革将有哪些“大动作”？1月12日召开的全国医疗保障工作会议给出答案。

为持续挤压药品耗材虚高价格水分，2023年将开展新批次国家组织药品和高值医用耗材集采，扩大地方集采覆盖品种，实现国家和省级集采药品数合计达450个。同时，引导新冠治疗药品合理形成价格。

会议也要求，切实做好实施“乙类乙管”后新冠病毒感染患者治疗费用医疗保障工作，方便群众享受直接结算服务，加快费用清算结算速度，减轻救治医疗机构垫资压力。

此外，将进一步扩大普通门诊和门诊慢特病费用跨省联网定点医疗机构覆盖范围，稳步提高住院费用跨省直接结算率；推进扩大长期护理保险制度试点，探索建立有效的独立筹资机制和监管机制，健全失能等级评估标准体系。

教育：继续突出抓“双减”

2023年全国教育工作会议要求，推动立德树人根本任务取得新的重要进展，加快建立健全促进学生身心健康、全面发展的长效机制。

基础教育方面，“更加公平、更高质量”成为关键词。学前教育、特殊教育突出“普惠发展”，义务教育突出“优质均衡”，高中阶段学校突出“多样化”。教育部也强调，2023年要继续把“双减”摆在突出位置来抓。

会议提出，要采取多种措施，让职业教育早期分

流的学生通过纵向贯通、横向融通的体系设计获得“回流”可能，让不同禀赋的学生能多次选择、终身学习、多样化成才。

为解决高校“大而全”“同质化”等问题，会议还要求加快探索高校分类管理评价机制改革，引导高校在不同“赛道”上办出特色、办出水平。

住房：支持刚性和改善性住房需求

支持住房改善，确保房地产市场平稳发展，扎实做好保交楼、保民生、保稳定各项工作，是2023年房地产工作的重点。

住房和城乡建设部部长倪虹表示，对购买第一套住房的，要大力支持。对购买第二套住房的，要合理支持。对购买三套以上住房，原则上不支持。同时，将加大力度，增加保障性租赁住房供给和长租房市场建设，让新市民、青年人更好地安居，放开手脚为美好生活去奋斗。

同时，也要推进保交楼、保民生、保稳定工作；着力化解房企风险；努力提升品质、建设好房子，为老房子“治病”，研究建立房屋体检、养老、保险三项制度；合力整治房地产市场秩序。

近期，人民银行等部门建立首套住房贷款利率政策动态调整机制，研究推出保交楼贷款支持计划、住房租赁贷款支持计划等结构性工具，有助于支持房地产市场平稳运行。

养老：完善居家养老服务规范

调查显示，居家社区养老是我国绝大多数老年人的首选。2023年，民政部将联合财政部继续实施居家和社区基本养老服务提升行动，支持一批项目地区建设10万张家庭养老床位，提供20万人次居家养老上门服务。

在完善居家养老服务规范方面，民政部将于2023年编制发布《居家养老上门服务基本规范》，通过对服务内容、流程、评价与改进等方面进行规范，提升服务质量。

此外，还将研究制定推动家庭养老床位规范发展的相关文件，将专业照护与远程支持、智能辅助等手段有机结合，使失能老年人居家就能享受“类机构”的专业照护服务。

兜底保障：帮助困难群众排忧解难

2023年，民政部将加快健全分层分类的社会救助体系。

截至2022年10月底，我国有4017.7万人纳入城乡低保。新的一年，民政部将根据实际需要适时扩围增效，加强对低保边缘人口、支出型困难人口的专项救助，做好对因疫因灾遇困群众的基本生活保障，确保不发生规模性返贫。

此外，民政部将全面落实由急难发生地实施临时救助政策，为临时遇困群众申请救助提供便利。

在就业兜底帮扶方面，人社部表示，将加强困难人员就业援助，实现零就业家庭至少一人就业。强化失业人员生活保障，及时兑现各项失业保险待遇，加强生活救助与就业促进协同。

财政部提出，2023年，财政收支矛盾依然突出，但不会在民生支出上退步。2023年将进一步健全社会保障体系，保障好因疫因灾遇困群众、老弱病残等特殊群体的基本生活。

消费：鼓励住房、汽车、养老服务等消费

国家发展改革委将多渠道增加城乡居民收入，特别是提高消费倾向高、但受疫情影响大的中低收入居民消费能力；支持住房改善、新能源汽车、养老服务等消费，推动重点领域和大宗商品消费持续恢复；促进线上线下深度融合发展，利用新技术新应用拓展购物体验。

商务部将继续推动落实扩大汽车消费系列政策措施；开展家电以旧换新，推进绿色智能家电下乡；促进餐饮、住宿等行业恢复发展。

在进一步恢复和激活消费场景方面，商务部近日公布首批全国示范智慧商圈、全国示范智慧商店，将指导各地因地制宜发展智慧商圈、智慧商店，给消费者带来耳目一新的体验。

人民银行党委书记、银保监会主席郭树清表示，2023年要以满足新市民需求为重点，开发更多适销对路的金融产品，鼓励住房、汽车等大宗商品消费。同时，围绕教育、文化、体育、娱乐等重点领域，加强对服务消费的综合金融支持。

乡村：改善农村消费硬设施优化软环境

2023年，农业农村部将在加快激活农村市场、释放农民消费潜力方面拿出更多实招硬招。

农业农村部将从供给端和流通渠道发力，推动各地扩大绿色、有机、地理标志和名特优新农产品生产，扩大电子商务和物流快递的农村覆盖率，着力改善农村消费硬设施、优化软环境。

在乡村建设方面，值得期待的是，将布局建设一批产地仓储保鲜设施、冷链集配中心和大型冷链物流基地，优先建设产业路资源路旅游路等既方便生活又促进生产的项目。 /南京日报



有困难去“超市”！江门着力打造群众诉求服务优选地

“我想要办房产证，这里能帮我解决问题吗？”去年，新会区“信访超市”接到黄伯的诉求，通过政府部门、驻点社工和驻点律师多方联动，黄伯的房屋不动产证成功办理。“我心里的大石终于可以落地了。”黄伯捧着房产证说。有困难去“超市”！江门着力打造群众诉求服务优选地。

去年以来，江门市深入贯彻落实党的二十大精神，坚持以人民为中心，凝心聚力擦亮群众诉求服务品牌，建成并运行“信访超市+外送服务”工作体系，依托“粤平安”“信访超市”等线上线下平台，整合多方资源下沉一线，主动向群众提供“一站办”“外送服务”等多场景综合诉求服务。

据统计，2022年至今，全市群众诉求事项办结超过12万件，重复信访积案化解率、群众满意率均排在全省前列。眼下的江门，大事小事去“超市”的氛围正在逐渐形成，居民的幸福感、获得感、安全感得到有效保障。 来源：南方Plus

国家医保局：医保报销的新冠用药品种丰富

2022年国家医保药品目录谈判工作于1月8日正式结束。国家医疗保障局医药管理司负责人介绍了新冠治疗药品参与医保药品目录谈判有关情况：今年，共



有阿兹夫定片、辉瑞奈玛特韦片/利托那韦片组合包装、清肺排毒颗粒3种新冠治疗药品通过企业自主申报、形式审查、专家评审等程序，参与了谈判。其中，阿兹夫定片、清肺排毒颗粒谈判成功，辉瑞奈玛特韦片/利托那韦片组合包装因报价高未能成功。

该负责人表示，虽然辉瑞奈玛特韦片/利托那韦片组合包装未能通过谈判纳入医保目录，但根据近期国家医保局会同有关部门联合印发的《关于实施“乙类乙管”后优化新型冠状病毒感染患者治疗费用医疗保障相关政策的通知》要求，《新型冠状病



毒感染诊疗方案（试行第十版）》中的所有治疗性药物，包括辉瑞奈玛特韦片/利托那韦片组合包装、阿兹夫定片、莫诺拉韦胶囊、散寒化湿颗粒等，医保都将临时性支付到2023年3月31日。在此期间，新冠病毒感染的参保患者使用这些药品均可享受医保报销政策。此外，阿兹夫定片、清肺排毒颗粒经过本次谈判纳入国家医保药品目录后，国家医保药品目录内治疗发热、咳嗽等新冠症状的药品已达600余种。同时，为满足各地新冠病毒感染患者治疗的需要，近期各地医保部门结合当地医保基金运行情况，又将一批新冠对症治疗药物临时纳入本地区医保支付范围。总体来看，医保报销的新冠病毒感染治疗用药品种丰富。

该负责人还表示，近期国家医保局办公室印发《新冠治疗药品价格形成指引（试行）》，对防治新型冠状病毒感染所需的新上市抗病毒治疗药品，采取全周期多层次的措施，引导企业公开透明合理定价。 来源：人民日报

국제단신

guojiduanxin

로씨야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위협에 끝까지 맞서나갈 립장 표명

최근 로씨야대통령과 외무상이 여러 기회들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뿌찐대통령은 크레믈리에서 가진 대중보도수단 대표들과의 상봉과 TV 로씨야 1에 준 인터뷰에서 현 우크라이나사태의 근저에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구호밑에 로씨야를 붕괴시키려는 지정학적적수들의 기도가 깔려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전 쏘련지역에 마수를 뻗쳐온데 대해 까밝혔다. 2023년 신년연설에서도 그는 서방이 수년간 돈바쓰지역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운운하였지만 실지로는 끼예브의 신나치스분자들을 자국에 대한 침략에로 내몰고 우크라이나와 이 나라 인민을 로씨야를 분렬약화시키는데 리용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라브로브외무상은 TV 로씨야 1, 따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들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령토에서 자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는 모든것을 청산하는것이 바로 특수군사작전의 중요목표들중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집단의 반로씨야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개시된것이며 우크라이나분쟁에서 기본수익자로 되고있는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더 큰 리득을 얻기 위해 분쟁을 지연시키고 더욱 가열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붓고있다고 비난하였다.(끝)

2022년, 세계는 어떻게 된 걸가?

2022년의 유럽,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셔지기도 전에 로－우 충돌의 포성이 하늘을 뒤덮었다.

군용 무인기 카메라는 목표확정, 추적, 조준, 투탄 등 게임과 같은 화면을 포착했고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갔다.

전쟁과 충돌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아픔을 주었고 사회발전 진보의 진척을 늦췄으며 세계적인 도미노 위기를 일으켰다.

식량위기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글로벌 식량 생산과 수출 대국으로서 량국의 충돌은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고 따라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8년 이래 가장 심각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초래했으며 3.45억 인구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전쟁은 계속되고 식량위기는 여전히 격화되고 있다.

에너지위기

2022년 9월, 로씨야와 서유럽을 련결하는 ‘노르트스트림1’ ‘노르트스트림2’ 파이프라인이 련

이어 폭발했다. 누가 배후에서 이 음모를 주도했을까? 국제여론은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후과는 명백히 알 수 있다. 바로 유럽인들이 보내는 이번 겨울은 수십년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일부 유럽 국가는 올해 전기료금이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생산원가가 대폭 상승했고 내외투자가 뚜렷이 줄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룰라 브라질 대통령, 질서 회복 위해 수도 치안 개입 선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가 권력기관 란입 사건 이후 질서 회복을 위해 브라질리아에 대한 안전관리 사무 개입을 선언하는 행정법령에 서명했다.

행정법령에 따르면 이는 "폭력 행위와 공공건물 침입으로 수도 련방 지역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리아에 대한 련방정부 차원의 개입은 오는 31일까지 지속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는 8일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수천명의 시위자는 수도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궁 등 국가 권력기관에 란입해 란동을 부려 경찰과 충돌했다.

국가 권력기관 란입 사건 직후 브라질리아 련방 주지사는 련방지역 공공안전사무 총책임자인 안데르송 토레스 안보장관을 해임했다.

한편 로자 베버 브라질 대법원장은 "이들 '테로리스트'가 합당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다. 아우구스투 아라스 브라질 련방 검찰총장은 관련 부서에 침입자에 대한 조사를 책임지고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퇴임을 이틀 앞둔 2022년 12월 30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그는 올해 1월 1일 열린 룰라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룰라는 2022년 10월 30일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50.9%의 득표률로 49.1%의 표를 얻은 보우소나루를 제치고 당선됐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독립국가협동체나라 대통령들 신년사 발표

독립국가협동체나라 대통령들이 2023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뚜르크메니스딴대통령 쎄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브는 2022년에 살림집과 현대적인 학교, 유치원, 병원, 체육시설, 공원 등 많은 대상건설이 완공되였다고 하면서 이 모든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증명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속에서 건전한 생활양식, 애국주의와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도덕, 공민적책임감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이 적극 벌어진데 대해 언급하고 새해에 조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우즈베끼스딴대통령 샤브까뜨 미르지요예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민들의 권리와 자유, 정당한 리익을 보장하고 어린이들이 질적인 교육과 교양을 받으며 성장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 문화, 보건, 교육부문 일군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국가의 선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까자흐스딴대통령 까씸-죠마르뜨 또까예브는 지난해 까자흐스딴인민은 시련속에서 공동의 미래를 위해 더욱 뭉쳤다고 하면서 2023년의 주요목표는 국가를 강화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끼르기즈스딴대통령은 새해에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제르바이쟌대통령은 올해에 에네르기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혔다.

묻어둘수 없는 반인륜적범죄행위

최근 미국의 로스안젤스부근의 어느한 감옥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적어도 2 600여명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수십차례의 《비륜리적인 의학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추문자료들이 공개되여 세상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에서 《인체실험》의 검은 력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다.

미국정부가 1946년부터 1948년사이에 약 5 500명의 과떼말라인들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감행하였으며 미국 알라바마주의 공공보건부문이 1932년부터 《무상치료》의 명목으로 약 400명의 아프리카계남성들을 실험대상으로 매독이 인체에 주는 해독성을 비밀리에 연구한것이 대표적실례들이다.

이번에 언론에 폭로된것은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되여온 비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인체실험》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추문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외국인, 아프리카계흑인들이거나 자유를 잃은 죄수들이라는 점이다.

백인지상주의, 인종주의가 지배하고있는 미국에서는 《렬등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별일이 아닌것으로 취급되는 명백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얼마전에는 미국에서 2022년에만도 총기류범죄로 17살미만의 미성년자 6 000여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 수자는 2014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2배이상 증가한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여 세상을 다시한번 놀래웠다.

상기 자료들은 미국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인권침해행위들이 횡행하는 반인륜적사회, 패륜패덕의 표본국임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고있다.

미국은 항상 자신을 《인권옹호자》로 자처하고있지만 사람들을 놀래우는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가짜 인권옹호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인권옹호에 대해 제아무리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세상사람들을 영원히 속일수는 없으며 이번 《인체실험》추문으로 인하여 세상사람들은 미국의 진면모를 다시한번 똑바로 보게 되였다.

미국은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해 자국민들과 국제사회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것이다.(끝)

일본, 관련 기구의 엄격한 감독 받아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전에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처리 문제 기술팀의 세번째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모녕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후꾸시마 핵오염수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화장치의 유효성, 환경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음을 재차 표명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합리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모녕 대변인은 초보적으로 볼 때 이 보고서는 후꾸시마 핵오염수 처리 및 환경에 대한 영향에 주목해 관련 데이터에 대한 평가 심사방법과 계획을 내놓았다며 각측이 고도로 관심하는 후꾸시마 핵오염수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 데이터 채취방법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 등 중요한 문제에서 보고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모녕 대변인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며 국제사회의 정당하고 합리한 요구에 중시를 돌려 주변국들과 태평양 섬나라, 관련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신화사



‘축구황제’ 펠레 암투병 끝 향년 82세로 별세

2022년 12월 30일 11:07

세계 축구 력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혀온 ‘축구황제’ 펠레(브라질)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펠레가 치료를 받고 있던 브라질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은 펠레가 현지시간으로 29일 오후 3시 27분 사망했다며 ‘그가 앓고 있던 질병들과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펠레의 인스타그램에는“오늘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황제’펠레의 려정에는 령감과 사랑이 깃들었다. 그는 스포츠에 관한 천재성으로 세계를 매료했고 전쟁을 멈추게 했고 전 세계에서 사회적 사업을 수행했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치료법이라고 믿었던 사랑을 퍼뜨렸다. 그의 메시지는 미래 세대들에게 유산이 된다. ‘사랑, 사랑, 사랑. 영원히'”라고 적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의 딸인 켈리 나시멘투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펠레의 손을 잡은 사진을 올리고는“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편안하게 쉬세요”라는 글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아들인 에디뉴는 펠레의 과거 사진과 함께 "신과 함께 가세요, 아버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종양이 발견돼 제거수술을 받은 펠레는 이후 화학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갔고 지난달 심부전증과 전신 부종, 정신 착란 증상 등으로 재입원했다.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호흡기 증상 치료까지 받으며 힘든 투병을 이어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 의료진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펠레의 암이 더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장, 신장 기능 장애와 관련해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그의 병이 더욱 위중해졌음을 알렸다.

벨리의 장례식은 산토스시에서 치러지며 가족들은 아직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산토스시 구단 산토스팀은 펠레가 가장 오래 뛴 구단이다.

펠레는 현역생활 동안 1363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트리며 ‘축구황제’로 칭송을 받았다.

1956년부터 1974년까지 브라질 산투스에서 뛰며 공식전 660경기에서 643골을 넣었고 1975년에는 북미사커리그(NASL) 소속 뉴욕 코스모스에 입단해 세 시즌을 뛰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서도 통산 A매치 92경기에서 77골을 넣었다.

브라질 축구의 아이콘인 펠레는 월드컵 14경기에서 12골을 몰아쳤고 세차례 월드컵(1958년·1962년·1970년)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상식
changshi

우리 나라의 위치와 면적

우리 나라는 아시아대륙 동쪽 가운데에 자리잡고있다. 우리 나라는 반구지도상으로 북반구, 동반구, 륙반구에 자리잡고있다.

북부는 넓은 아시아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남 세면은 태평양의 북서쪽연해들인 조선동해, 조선서해, 조선남해로 둘러싸여있다.

우리 나라의 북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및 로씨야와 잇닿아있으며 동쪽은 조선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있다. 위도상으로는 N 33°06′43″(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와 N 43°00′36″(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사이에 있으며 경도상으로는 E 124°10′47″(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서쪽끝)와 E 131°52′40″(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사이에 놓여있다.

우리 나라의 동쪽끝인 독도와 서쪽끝인 비단섬사이의 경도차는 약 8°이다. 섬을 제외하였을 때에는 E 124°18′41″(평안북도 룡천군 진흥로동자구 서쪽끝)와 E 130°41′32″(라선시 우암리 동쪽끝)사이에 놓여있어 경도차가 6°이다. 경도의 차이는 동부지방과 서부지방에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나 우리 나라에서 그 차이는 약 20~30분으로서 그리 크지 않다.

우리 나라의 남쪽끝과 북쪽끝사이의 위도상차이는 약 10°(섬을 제외하였을 때에는 9°)로서 경도상차이에 비하여 크다. 위도상차이가 크기때문에 북부와 남부에서는 철에 따라 낮시간길이가 서로 다르며 기후, 식물, 토양을 비롯한 자연조건도 서로 다르다.

우리 나라는 자연기후대로 보아 북온대 중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후조건도 사람들의 생활에 알맞춤하다.



우리 나라는 또한 아시아대륙과 태평양이 잇닿아있는 곳에 놓여있어 대륙과 바다의 특성을 다 반영하는 다양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으로서 수산업과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고 바다자원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우리 나라는 북남으로 길게 놓인 하나의 큰 반도와 그 주변에 있는 3 452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우리 나라 둘레의 총길이는 8 515.6㎞(섬제외)로서 면적에 비하여 훨씬 길다. 그것은 우리 나라 해안선이 매우 복잡한것과 관련된다. 해안선의 길이는 7 146.2㎞로서 전체 둘레길이의 83.9%나 된다. 륙지경계선의 길이(두만강어구—압록강어구)는 1 369.4㎞이다. 로씨야와의 국경선길이는 16.2㎞이다.

우리 나라 총면적은 22만 3 370㎢이다. 이가운데서 반도부의 면적은 21만 7 463㎢이며 섬의 면적은 5 907km2이다. 우리 나라의 국토면적에는 바다가에 펼쳐져있는 간석지가 포함되여있지 않다. 우리 나라 총 면적가운데서 공화국북반부의 면적은 12만 3 138㎢이고 남반부의 면적은 10만 232㎢이다.



조선어글자의 류형 (朝鲜语文字的类型)

조선어글자에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 자음과 모음, 자음(홑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모음, 자음(홑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자음과 모음, 자음, 자음(둘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모음, 자음, 자음(둘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이 있습니다.

朝鲜语文字可只由母音构成，可由子音和母音构成，可由子音、母音和 子音(单收音)构成，可由母音和子音(单收音)构成，可由子音、母音、子音 和子音(双收音)构成，也可由母音、子音和子音(双收音)构成。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

只由母音构成的文字

《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애, 얘, 에, 예, 외, 위, 의, 와, 워, 왜, 웨》 총 21자

-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자

由子音和母音构成的文字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 》총 334자

- 자음과 모음, 자음(홑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由子音、母音和子音(单收音)构成的文字

《각, 낙, 닥, 락, 막, 박, 삭, … 》 총 1 718자

- 모음, 자음(홑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由母音和子音(单收音)构成的文字

《악, 약, 억, 역, 옥, 욕, … 》 총 164자

- 자음과 모음, 자음, 자음(둘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由子音、母音、子音和子音(双收音)构成的文字

《값, 닭, 많, 밟, 삶, 옳, … 》 총 96자

- 모음, 자음, 자음(둘받침)으로 이루어진 글자

由母音、子音和子音(双收音)构成的文字

《앉, 읅, 옮, 않, 읽, … 》 총 23자

총 개수 21자+334자+1 718자+164자+96자+23자=2 356자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반만년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사에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그 이름 빛나고있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은 고구려국가를 세우고 점차 강대한 나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주몽, 추모, 중해이고 왕호는 동명성왕이며 아버지는 해모수, 어머니는 류화이다.

해모수는 구려(졸본부여)부근의 한 귀족문벌 출신이였고 류화는 그 이웃지역의 유력한 정치



세력자인 하백의 딸이였다.

해모수와의 관계로 하여 부여왕실에 가서 나그네살이를 하고있던 류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주몽이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보통사람과 달랐고 커가면서 제손으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하였다고 한다. 부여, 구려 지역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그는 뛰여난 재능과 함께 무술도 겸비하였다. 하루는 부여왕의 일곱왕자가 부하 40여명을 데리고 주몽과 함께 사냥을 하였는데 주몽이 혼자서 수십마리의 짐승을 잡는 사이에 그들은 겨우 사슴 한마리밖에 잡지 못하였다.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여 큰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다음 그가 잡은 짐승을 빼앗아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주몽은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를 통하여 주몽이 남달리 뛰여난 재능과 무술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칼쓰기 등 무술련마를 생활화하여 그 어떤 침략자들도 범접 못하게 한 고구려사람들의 상무기풍을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문무를 갖춘 주몽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부여왕과 그 아들들은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였다. 이 음모를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는 《네 재간을 가지고 어디가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여기에 머물러 욕을 당하기보다는 멀리 가서 큰 일을 하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부여를 떠날것을 권고하였다.

오이, 마리, 협보 등 뜻이 같은 벗들과 함께 부여를 떠나 엄호수에서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쳐물리치고 남쪽으로 내려간 주몽은 구려에 이르러 그곳 봉건세력과 함께 B.C. 277년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그때 동명왕의 나이는 22살이였다.

나라를 세운 후 봉건적인 국가사회체제를 갖추면서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령토를 넓히고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등 고구려의 강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동명왕은 B.C. 259년 40살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민족의 설맞이풍습



새해를 맞으며 웃사람들에게 설인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것은 동방례의지국인 조선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 설은《세수》,《년수》,《원단》,《원일》이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모두 한해의 첫날이라는 뜻이다.

설은 지나온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분으로 맞는 새해의 첫 명절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미리부터 그 준비를 잘하였다.

설날이 다가오면 식구들의 설옷을 마련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쇠기 위하여 집안팎을 청소하였으며 장수와 행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려붙이기도 하였다. 청신한 소나무가지로 솔대문을 세우고 화려한 축등을 달아매여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설맞이에서 중요한것은 설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였는데 떡국을 기본으로 정하였다.

설날 아침에는 웃어른들에게 존경을 담아 세배를 하였다.

마을의 웃어른들과 가까운 친척집의 웃사람들, 스승들에게도 찾아가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인사말을 하면서 세배를 하였다.

친구들사이에도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주고받았다.

또한 설날에는 친척들이 한곳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먹었으며 찾아오는 이웃들도 잘 대접하여 화목을 두터이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하면서 이날을 뜻깊게 보내였다.







얼굴색과 건강

얼굴색은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있다.

고려의학에서는 얼굴에 모든 경락을 흐르는 기혈이 반영되여있는것으로 보고 건강상태를 진단하였다.

약간의 황색과 붉은색이 합쳐져 광택을 띠는 얼굴색은 정상이지만 얼굴이 누렇고 피부도 건조하며 입술이 창백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소화기가 나빠졌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얼굴색이 하얗게 될 때는 빈혈증이 있거나 대장에 질병이 생긴것이라고 한다.

얼굴색이 푸른빛을 띠는것은 간질환때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검푸르면 간질환의 마지막단계에 이른것이라고 볼수 있다.

얼굴색이 검은것은 콩팥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라고 한다.

얼굴색에 따라 내장의 병든 정도와 원인도 판단할수 있다.

녀성들이 심한 달거리아픔을 호소하고 얼굴색이 하얗다면 그것은 빈혈증상일 가능성이 높으나 같은 증상이라도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검붉은색을 띠는 경우에는 어혈때문인것으로 볼수 있다.

얼굴색과 몸의 형태를 보고도 건상상태를 알수 있다.

몸은 좋으나 혈색이 없으면 몸의 양기가 부족한 현상이며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기운이 없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머리가 흐리멍텅하다고 한다.

몸이 수척하고 지방이 부족하며 얼굴색이 붉을 때는 손과 발바닥에 열과 식은땀이 나며 목이 마르면서 속이 답답해진다고 한다.

손가락의 색을 보고도 병을 진단할수 있다.

감기에 걸리면 손가락이 선홍색을 띠고 갑자기 놀라면 손가락이 청색을 띠며 몸에 열이 심하면 손가락이 자주색으로 된다고 한다.

고려의학에서는 이와 같이 얼굴 및 피부색에 의해 아픈곳과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것을 망진이라고 하였다.



메기장과



▶ 재료

메기 600g, 닭알 2알, 밀가루 30g, 간장 20g, 기름 100g, 사탕가루 20g, 후추가루 0.3g, 맛내기 0.2g, 소금 3g, 참깨 2g

▶ 만드는 방법

1. 메기는 살편을 내여 길이 5~6cm, 너비 1cm, 두께 0.8cm 되게 썬 다음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로 재운다.
2. 그릇에 닭알을 까두고 밀가루를 둔 다음 가볍게 섞어 튀기옷을 만든다.
3. 재워놓은 메기살편에 튀기옷을 입혀 기름에서 노릇노릇하게 튀긴다.
4. 단 남비에 사탕가루와 간장을 두고 탕색을 만든 다음 튀긴 메기살편을 넣어 골고루 묻혀 그릇에 담아 참깨를 뿌려 낸다.

새우게찜

▶ 재료

새우 8마리, 게 2마리, 돼지고기 20g, 두부 20g, 푼 닭알 25g, 파 20g, 마늘 5g, 간장 5g, 후추가루 0.5g, 소금 1g

▶ 만드는 방법

1. 새우는 깨끗이 손질하여 소금을 뿌려 재웠다가 찜가마에 넣어 살짝 쪄내든가 소금물에 삶아낸다. 파와 마늘은 다진다.
2. 게는 씻어서 딱지를 제끼고 게장과 다리에 붙은 살을 말끔히 꺼내여 그릇에 담아 이겨놓는다. 돼지고기는 다지고 두부는 물을 짜서 부스러트린다.
3. 이겨놓은 게장에 다진 돼지고기와 두부, 푼 닭알을 섞고 소금, 후추가루, 간장, 다진 파와 마늘을 둔 다음 게딱지속에 넣는다.
4. 찜가마에 게딱지를 올려놓고 한김 올린다.
5. 접시에 쪄낸 새우를 담고 한가운데에 게딱지를 놓은 다음 보기 좋게 장식하여 낸다.





조선의 민족료리

메기찹쌀완자찜



▶ 재료

메기살 400g, 찹쌀 50g, 생강즙 5g, 다진 마늘 10g, 닭알흰자위 1알분, 농마가루 10g, 소금 3g, 흰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1. 메기살은 잘게 다지고 찹쌀은 2시간정도 물에 불구어놓는다.
2. 다진 메기살에 농마가루, 생강즙, 다진 마늘, 소금, 흰후추가루, 닭알흰자위를 두고 골고루 섞어서 15~20분동안 재운다.
3. 재운 메기살을 환자모양으로 빚어 불군 찹쌀에 굴린 다음 찜그릇에 담고 쪄서 낸다.

메기깨튀기

▶ 재료

메기 250g, 참깨 20g, 푼 닭알 25g, 기름 30g, 다진 마늘 5g, 생강편 5g, 농마가루 30g, 파토막 20g, 료리용술 5g, 소금 3g, 맛내기 1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1. 메기는 살편을 떼내여 껍질을 벗기고 길이 4cm, 너비 3cm, 두께 0.8cm크기로 썬 다음 다진 마늘, 생강편, 파토막, 료리용술, 소금, 맛내기, 후추가루를 두어 15~20분동안 재운다.
2. 푼 닭알에 농마가루를 두고 섞어서 튀기옷을 만든다.
3. 재운 메기살편에 튀기옷을 묻히고 참깨를 뿌린 다음 150~160℃의 기름에 넣어 노릇노릇하게 튀겨 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